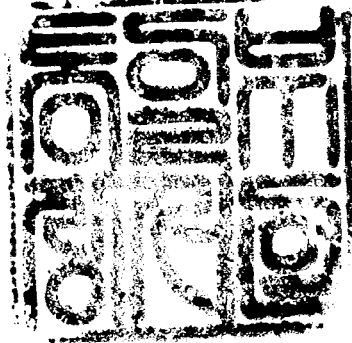


2003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2003. 12

전산필



통 일 부

목 차

1. 2003년도 경제정책 방향

가. 기본 목표	1
나. 경제 부문별 주요과업(신년공동사설)	2
다. 세부정책 추진방향	3
라. 평 가	4

2. 재정 · 예산

가. 2002년도 예산집행실적 결산 및 2003년도 예산	5
나. 「인민생활공채 발행」	7
다. 평 가	10

3. 주요 산업별 동향

가. 농 · 수산업 및 임업	13
나. 광 · 공업	24
다. 수송 및 정보통신산업	43
라. 도시 및 주택건설	49

4. 대외 무역 및 경제협력 동향

가. 대외 무역	54
나. 대외 경제협력	55
다. 특구 개방 관련 후속 조치	58
라. 평 가	65

5. 경제관리개선조치 추진 동향

가. 경제관리개선 추진방향	67
나.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변화동향	68
다. 평 가	71

6. 종합평가 및 전망

가. 종합평가	73
나. 전 망	76

※ 부 록

1. 2003년도 경제분야 관련 행사 개최 현황	77
2. 2003년도 주요 경제건설 실적	79
3. 2003년도 북한경제 주요일지	83

1. 2003년도 경제정책 방향

가. 기본 목표

- 북한은 2003년에도 예년과 같이 연초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2003년도 기본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1.7~12), 신년공동사설의 관철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하였음.
- 신년공동사설에서는 먼저 2002년도 경제 건설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로
 - 첫째,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물길) 공사 등 '대자연 개조사업'의 성과적 추진
 - 둘째, 경제관리개선 및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새로운 조치(7.1경제조치)의 단행을 내세웠음.
- 2003년도는 북한정권수립 55주년임을 고려하여,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의 선군사상과 노선'을 구현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 경제와 건설에서 '새로운 변혁'을 이루어 나갈 것과 '혁명의 근본이익'이란 관점에서 '국방공업'을 중시해 나갈 것을 정책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음.

나. 경제 부문별 주요과업(신년공동사설)

- 2003년도 경제부문 주요과업은 전력·석탄·금속공업과 철도 운수 등 소위 '선행부문'을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고리로 장악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을 추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 경공업 부문에서는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여 질 좋은 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기로 하였음.
- 농업 부문은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 농사방침'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기로 하였음.
- 건설 부문은 대규모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추진하고 '혁명의 수도' 평양을 새로운 세기에 맞게 더욱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설하기로 하였음.
- 경제관리 부문은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것임.
- 과학기술 부문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진기술을 진지하게 배우고 최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설정하고 있음.

다. 세부정책 추진방향

- 1월초 개최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1.6~1.12)에서는 신년 공동시설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였음(1.7~1.13방송)
-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기간 중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음.
 - ‘국방공업’은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여 발전을 도모
 - 기간산업 부문의 생산능력 확장을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도입, 기존 공장·기업소의 시설을 현대화
 -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확산 및 부작용 방지와 관련하여 후속조치를 실시
 -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식·의·주 문제의 해결 및 부족한 소비품 공급 증대에 주력
 - 식량증산을 위해 ‘감자농사혁명, 종자혁명, 두벌농사’ 실시 등 농업혁명과 토지정리사업의 성과적 수행
 - 평양시는 알곡생산을 전년비 1.2배, 감자생산을 전년비 2.4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
 - 평양시·평안남도·남포시 토지정리사업을 조기에 완수하고 개천-태성호 관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 양강도는 대홍단군·삼지연군 등의 ‘감자농사혁명’ 방침을 관철
 -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평양 등 도시와 농촌주택 건설, 상·하수도망의 개건·보수, 도시미화 사업을 적극 추진 등

라. 평 가

○ 2003년도 북한 경제정책 노선의 특징은 ‘국방공업’을 중시하여 ‘혁명의 근본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경제관리 면에서 ‘새로운 변혁’을 추구, ‘경제적 실리’의 극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표면상으로 ‘국방공업’에 역량 집중을 기본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핵문제를 의식해 대내적으로 긴장을 유지, 체제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경제관리 개선정책은 2002년도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속 보완을 통해 ‘가장 큰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김정일은 2001년 담화에서 사실상 경제개혁을 경제 강국 건설의 전제 조건으로 규정하였음.

※ “경제 관리에서 ‘혁신’을 일으키지 못하면 나라경제를 추켜세울 수 없고, 경제 강국을 건설할 수 없다”(’01.10.3. 김정일의 당·국가 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대화)

○ 한편 북한이 금년에도 과학기술 발전과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등 낙후산업 부문의 발전을 촉구함으로써 산업구조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금년에도 구체적인 경제계획 목표에 대한 통계지표는 물론이고 전체 예산규모에 관한 통계까지도 공개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대외경제 개방이나 국제협력 강화 정책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재정 · 예산

가. 2002년도 예산집행실적 결산 및 2003년도 예산

- 2003년도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3.26)에서는 지난해와는 달리 '내각의 과년도 사업 정형과 당해 연도 과업에 대한 총리보고'가 없었으며, 예산 보고서 내용에서도 결산 및 예산 규모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 특징임.
- 예산 규모를 밝히지 않은 것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른 북한 원화의 평가 절하와 물가·임금체계 변화로 인한 각종 원화 표시 통계 시계열화의 어려움과 이로 인해 야기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2002년도 결산내역>

- 지난해 예산 수입 실적은 계획의 100.5%를 수행한 것으로 발표하였음.
 - 예년과는 달리 중앙과 지방기관 및 기업소별 중앙예산 수입 계획의 수행 실적을 언급함으로써 예산수입체계 및 구조 변화를 시사
- 지난해 예산 지출 실적은 계획의 99.8%를 집행한 것으로 발표하였음.
 - 비목별 예산지출 비중은 인민경제비 22.7%, 군사비 14.9%로 발표했으나 통상적으로 발표해오던 인민적시책비, 국가기관관리비 비중은 발표하지 않았음.

- 인민경제비는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 부문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분

※ 당초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예산안에서 발표했던 2002년도 예산 수입 및 지출 규모는 각각 221억 7,379만원이었음.

<2002년 비목별 예산집행 결과>

구분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군사비	관리비	합계
비중	22.7%	-	14.9%	-	100.0%

※ 인민경제비 내의 구체적인 세목별 내역 및 증가율 미발표

※ 2001년 : 인민경제비(42.3%), 인민적시책비(38.1%), 군사비(14.4%), 관리비(5.2%)

<2003년도 예산내역>

○ 금년도 예산 수입 규모는 전년비 113.6%로 증액하였음.

- 수입 비목별로는 국가기업이익금 수입 전년비 105.0%, 협동단체 이익금 수입 103.3%, 사회보험료 수입 106.7%, 토지사용료 수입 103.7%로 각각 증액

○ 금년도 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114.4%로 증액하고, '국방공업'의 발전,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 원칙 하에 편성하였음.

- 지출비목별 예산은 유일하게 군사비만 예산총액의 15.4%로 편성하였음을 발표

※ 지난해 군사비 지출실적은 지출예산 총액의 14.9%였음.

- 인민경제비 지출은 전년비 전력부문 112.8%, 석탄공업부문 130.0%이상, 농업부문 121.3%, 경공업부문 112.4%, 과학기술부문 115.7%, 국토건설부문 118.5%로 각각 증액
- 인민적시책비 지출은 전년비 교육부문 115.3%, 문화예술부문 114.4%, 보건부문 106.6%로 각각 증액

<2003년도 비목별 예산집행 계획>

구분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군사비	관리비	합계
비 중	-	-	15.4%	-	100.0%
증가율	전 력 : 12.8%	교 육 : 15.3%	-	-	14.4%
	석탄공업 : 30%이상	문화예술 : 14.4%			
	농 업 : 21.3%	보 건 : 13.1%			
	경 공 업 : 12.4%	체 육 : 6.6%			
	과학기술 : 15.7%				
	국토건설 : 18.5%				

나. 「인민생활공채 발행」

- o 2003년 1월 개최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대책과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확산 및 부작용 방지와 관련한 후속조치들을 논의하였음.
- o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회의에서는 「인민생활공채발행법령」을 채택(3.26)하고, 이를 내각공보로 발표하였음.(3.27)

- 발행목표 :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
- 유효기간 : 2003.5.1 ~ 2013.4.30 (10년간)
- 액면금액 :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3종)
- 상환방법 : 추첨에 의해 당첨금과 원금을 상환하고, 첫 2년 동안은 6개월에 한번씩, 그 다음해부터는 1년에 한번씩 추첨을 하며, 당첨되지 않은 공채의 원금은 2008년 12월 부터 매년 국가 예산에 반영하여 일정 금액씩 공채 유효 기간 말까지 전부 상환
- 업무조직 : 중앙과 도·시·군들에 비상설 인민생활공채 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에 인민생활공채 상무를 두어 업무를 담당
- o 재정성 정영춘 국장은 조선신보와의 회견에서 인민생활 공채의 최종적인 발행 규모를 400억~500억원으로 전망 하면서 판매기간 및 당첨금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 하였음.(5.6 조선신보)
- 판매기간 : 2003.5 ~ 2003.7 (3개월간)
- 당첨금액 : 액면금액별로 차등화하여 1,000원권은 1등 50,000원, 2등 25,000원, 3등 10,000원, 4등 5,000원, 6등 3,000원, 7등 2,000원으로 하고, 500원권은 각등 당첨액이 1,000원권의 반액, 5,000원권은 각 등 당첨액이 1,000원권의 5배

- 그러나 당초 판매기간(5.1~7.31)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결과 및 판매연장 여부 등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 8.18 조선중앙TV가 김정일 감사 전달 및 판매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도함으로써 판매사업기간 연장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음.
 - ※ “가는 곳마다에서 계속 활발히 진행되는 공채구매사업에서도 앞장서겠음”,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공채를 구매해서 나라에 이익을 주어야 하겠음”(8.18, 조선중앙TV)
- 인민생활공채 수입금은 “빠른 시일 내에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대상들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였음.
 - 공채 수입금은 발전소 건설 및 개건·현대화에 우선투자하고, 그 외에 평양시 정비, 토지정리,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건설 등의 사업에도 투자하는 것으로 보도(9.28, 노동신문)
- 북한은 당초 공채판매기간('03.5~7월)중 보도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판매 캠페인을 벌여 공채구매를 독려하였으나
 - 일반 주민들의 구입능력 부족으로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기간을 4~5개월 정도 연장 운영하여 자금동원을 극대화하였음.
 - ※ “인민생활공채 구매사업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더욱 활기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판매자금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효과 있게 지출되어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음”(11.29, 민주조선)
 - ※ 12.16 인민생활공채 구매사업 관련 각계각층에 김정일 명의의 감사전달을 하여 동 구매사업이 종료되었음을 시사(12.16, 중방)

다. 평 가

- 2003년도 예산보고서에서는 예년과 달리 예산의 전체 규모나 수입·지출비 목별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 이는 전년도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임금 및 물가 체계의 변화와 북한 화폐의 실질적인 평가 절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한편 2003년도 예산 증가율(수입 13.6%, 지출 14.4%)은 2002년도 예산 증가율(당초 예산계획: 수입 2.5%, 지출 2.3%)과 비교할 때 수입기준으로는 5.4배, 지출기준으로는 6.2배에 달하는 높은 팽창률을 나타내었음.
 - 2003년도 예산 증가율은 1974년(실적기준 16.3%)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전년도 국민소득 성장률(1.2%)을 감안하면 2003년도 예산은 주민들에게 극도의 내핍을 강요하는 팽창예산으로 평가
- 재정수입면에서 그동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왔던 거래수입금(2001년 기준 43.2%)의 증가율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 항목의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 토지사용료 수입을 언급한 것은 이전까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부과하였던 것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협동농장에 대해서도 부과한다는 조치내용이 실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재정지출면에서 군사비 비중(15.4%)을 유일하게 언급하면서 인민경제비 및 인민적시책비에 대해서는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총액 증가율 등을 언급하지 않고 이들 항목의 지출대상이 되는 부문중 지원규모가 증액되는 부문을 골라 전년 대비 증가율만 발표하였음.
- 인민경제비는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투자금액을 증액한다고 언급한 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음.
- 반면, 인민적시책비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추가적시책비(배급제 운영자금 등)와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들 분야에 대한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인민적시책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인민경제비와 인민적시책비의 비중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를 공개할 경우 '사회주의 재정'의 우월성을 주장해 온 인민적시책비의 감소가 두드러져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이와 함께 재정운영면에서는 「인민생활공채」 판매를 통한 적자재정정책을 채택한 것이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적자예산 편성의 원인은 북한은 '변 수입에 따른 분배' 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가기업이익금'을 인하하기 보다(국가기업이익금 수입 전년 대비 5% 증가) 거래수입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채택, 재정수입이 곧바로 축소되는 반면

- 재정지출면에서는 경제회복을 위한 각 경제부문 투자확대로 인민경제비의 지출이 늘어남으로써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더 커지게 되는 재정구조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북한은 ‘비상적 조치’로 인민생활공채를 발행 당초 판매기간(‘03.5.1~7.31)을 4~5개월 연장하면서까지 공채 판매 및 헌납을 적극 유도 하였음.
- 공채발행과 관련하여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정상적 시기에 공채를 발행하는 현상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재정금융사전, 1995) 북한이 현 경제상황을 ‘비상적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임.

3. 주요 산업별 동향

가. 농·수산업 및 임업

(1) 세부정책방향

- 북한은 연초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금년도 농업 부문의 기본과업은
 - “당의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고, 대규모 토지정리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목표를 설정하였음.

- 1월말에는 「전국 농업부문 일꾼대회」를 개최(1.26~27, 인민문화궁전)하여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토의하였음. (1.27, 중통, 1.28, 노동신문)
 - 종자혁명 및 두벌농사 면적의 확대
 - 평안남도·평양시·남포시 토지정리사업의 촉진
 - 개천-태성호 물길의 관리·운영사업을 잘하여 농업경영의 종합적 기계화·수리화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함

- 임업 부문에서도 「국토 환경보호 부문 일꾼회의」(1.28)를 통해 금년도 사업방향을 설정하였음.(1.29, 노동신문)
 - 철길과 도로주변 산들에 아카시아 나무, 잣나무 등의 속성수와 경제적 효과가 큰 나무들의 대대적 조림

- 그러나 축산업이나 수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책 목표나 사업방향에 대한 언급이나 발표를 찾아볼 수 없음.

(2) 농업기반 시설 건설 동향

<토지정리사업>

- 북한은 '02년 5월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 등에서 총9만여 정보의 토지정리사업에 착수, 그 1단계사업을 지난해 12월에 완공한 바 있음.(1.2, 노동신문)
-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 토지정리 2단계사업은 2004년 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이나 실질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끝낸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임.(농업성 장택성 과장의 언급)
- 김정일은 연초 올해의 경제 분야에 대한 첫 현지도 사업을 평안남도의 토지정리 사업장인 안주평야에서 실시(1.18) 함으로써 토지정리사업이 금년도의 경제 분야 중점과업임을 강조하였음.(1.19, 노동신문)
 - ※ 지난해 김정일의 경제 분야 첫 현지도는 김종래 전기기관차 공장에서 실시
- 한편 금년 2월에는 지난 5년간 강원도와 평안북도, 황해남도에서 추진한 토지정리사업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보도 함으로써 봄철 토지정리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욕을 부추기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음. (2.8, 노동신문, 3.5, 평방)

- 토지정리면적은 총 22만 6천정보, 논두렁 길이는 사업추진 이전의 9만 1,629km에서 5만 3,950km로 감소되고, 6,120여 정보의 새 땅을 찾아 10여개의 새로운 농장을 조성
- 논배미 수는 151만 5,108개에서 55만 7,594개로 감소되고 논배미 1개당 면적은 평균 450평에서 1,200평 규모로 확대
- o 10월초부터 가을철 토지정리사업에 착수, 농사철로 중단되었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토지정리사업을 일제히 재개하였음.(10.4, 중방)

<관개 시설 공사>

- o 금년 3월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 완료 후에는 광범위한 관개수로를 형성하여 본격적인 농업 증산을 도모하였음.
 - 1만여km 대운환선으로 형성된 수로를 따라 재령별, 연백별, 취야별 등 곡창지대에 관개수 유입(5.9, 노동신문)
 - o 5월에는 지난해 완공된 개천-태성호 물길에 연결되는 지선 건설사업을 완공함으로써 관계체계가 정비되었음.
 - 개천-태성호 물길과 연결되는 지선물길 공사를 완공(3.14, 중통)
 - 개천-태성호 물길 평남지선 통수식을 진행(5.15) 함으로써 속천군 백암지선 등 6개시·군 10개지선(총 연장 184km)이 형성되고, 총 1만 8,700여 정보의 논밭에 원활한 농업용수의 공급이 가능(5.16, 노동신문)
- ※ 북한은 개천-태성호 물길 건설로 관개면적 10만여 정보, 연간 곡물증산 30여만 톤, 전력절약 6만여 KW의 효과를 기대

- 또한 개천-태성호 물길 공사에 동원되었던 노력과 설비를 이용, 백마-철산 물길공사(약 273km)를 착공(5.1, 중방)하여 1단계 기본 제방공사를 완료하였음.(11.17, 노동신문)
- 피현군 삼천교언제~철산군에 이르는 대규모 수로공사로서 '02.10 OPEC 차관(1,020만달러)을 제공받아 추진
- 평북 삼천교 상류의 댐과 발전소를 비롯하여 연 690여리의 자연 물길과 1,290여 개의 각종 구조물을 건설하는 사업
- 완공시 평안북도 내 피현군, 룡천군, 염주군, 동림군, 철산군 및 신의주의 일부지역 등 총 4만 6,000여 정보의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공급하여 연간 10만여 톤의 곡물증산, 3만여kW의 전력절약 효과를 기대(5.1, 중방, 5.8, 노동신문)
- 그 외에 나선시에 저수지 공사 1건이 완공되고, 1건의 갑문 확장공사가 마감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음.
- 라진선봉경제지구의 라선저수지와 청년1호발전소를 4월 11일에 준공(4.12, 노동신문)
- 라진 포천갑문 확장공사가 마감단계에 있으며, 완공시 배천군의 논 수천 정보를 큰물피해로부터 방지하여 연간 1만톤 이상의 알곡 증산 효과를 기대 (6.24, 노동신문)

<간석지 건설>

- 북한은 90년대 후반부터 일부 준공된 간석지의 내부망공사 이외에 대규모 간석지 건설사업이 모두 중단된 상태에 있음.

- 금년 중에는 평안북도의 대계도 간석지 3호방조제 복구 공사 및 황해남도 강령간석지의 제방 수지 공사, 평안남도 금성간석지 개간공사가 보도되었음.
- 해일로 피해를 입은 대계도 간석지 3호제방(소연동도-대계도) 450m에 대한 복구공사를 정권 창건 55주년까지의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6.21, 노동신문)
- 황해남도 강령간석지 제방수지공사가 완공되어 저수지 물을 강령·웅진지구 1만 1천여 정보의 논에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천여 정보의 새 땅도 조성(10.15, 중방)
- 평안남도 온천군 금성간석지 개간공사가 시작되었으며, 150여km의 용배수로 공사, 56.4km의 도로공사, 44km의 제방 공사 등 방대한 사업임.(12.4, 중통)

(3) 생산 활동 관련동향

<농산부문>

- 금년도 북한 곡물생산 여건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순조롭게 조성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올해는 파종기에서부터 추수기까지 강수량이 충분하였고, 예년과 달리 태풍, 해일, 폭우, 저온 등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도 감소
- 9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토지정리 사업으로 토양 조건이 개선되고, 관개수로의 확장과 관개 및 배수체계도 개선 (자연흐름식 관개체계로 전환)
- 남한의 대북지원 비료 적기 제공(30만톤)

- 북한의 신문·방송에서도 농업생산 여건과 관련된 기상 이변이나 큰물피해, 병해충 발생 등의 보도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음.
- 지난 5년간 토지정리사업으로 새로운 농경지 6,123정보가 확보되었고, 개천-태성호 물길 완공으로 매년 30여만 톤의 곡물 증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 진행 중인 백마-철길 물길공사가 완공되면 10만여 톤의 곡물 증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도(연중 노동신문, 방송자료 종합)
- 두벌농사(2모작) 방침과 관련하여 평안북도의 경우 올해의 두벌농사 면적은 전년비 2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3.5, 노동신문)
- 농업정보화 통한 곡물 800만톤 생산을 목표로 전 영농과정에 컴퓨터 활용 및 과학기술보급을 추진하고 있음.
 - 벼연구소(우량품종), 농업과학연구소(석회비료), 자강도 농업과학원분원(씨앗소독), 청진농업대학(감자재배) 등 농업과학원 산하기관들이 각종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으며(5.17, 중방)
 - 농업과학원은 토지생산성 종합평가, 농업생태지역구분, 성장예측, 품종배치, 씨뿌리기, 모내기, 비배관리, 수확고 예측 등에서 많은 정보기술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보도(7.7, 중통)
- 최근 FAO가 금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8년만에 다시 400만 톤을 넘어서는 416만톤으로 발표한 사실과 지금까지 북한의 연도별 곡물생산 추세 등을 고려하면
 - 금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전년도 413만톤 보다 약 3% 증가한 425만톤 정도로 추정됨.

<축산부문>

- 북한은 90년대 후반부터 사료 부담이 적은 염소, 토끼 등 소위 풀먹는 짐승 사육에 관심을 두고 전 지역에서 염소목장 건설에 주력해 왔으며
 - 금년 김정일의 현지지도 일정에도 염소목장 방문계획을 포함시키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지난 7년 동안의 실적으로 북한은 총100여개의 염소목장을 새로 건설, 염소사육 두수가 3.8배로 증가하였으며, 각 지역에 수십 개의 축산전문 협동농장을 조직하였다고 주장 (6.2, 노동신문)
- 금년 중 완공되었거나 건설 중인 염소목장은 청진시 염소목장 및 젓가공공장, 초산군 청년염소목장, 법동군 영저리 지구 염소목장, 원산 염소목장 등 임.
 - 금년 7월에 완공된 청진시 염소목장 및 젓가공공장은 신암구역 ~ 청암구역의 들판에 초지를 조성, 90여동의 염소우리와 연간 염소젖 천수백 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도(7.2, 방송)
 - 초산군 청년염소목장은 초지면적 6천여정보, 방목도로 30여리(12km), 수의 방역실, 조리실, 젓가공실, 염소우리 18동 등을 건설 중(8.23, 노동신문)
 - 법동군 영저리 지구에 건설 중인 염소목장은 부지면적 5만여㎡, 초지면적 2만여 정보, 19개의 염소분장, 30여정보의 먹이기지로 이루어진 대규모 종합목장으로 버터, 요구르트, 치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공장도 건설 (7.18, 노동신문)

- 한편 금년 중에는 두단오리공장의 개건현대화 공사가 추진 중에 있음.
 - 총 부지면적 100여만㎡, 기본건물 60여개동, 보조건물 40여개동의 규모이며, 9월 현재 기본건물 건축공사가 완공된 상태(9.16 방송)
- 김정일은 군부대 및 경제 분야 현지지도시 군부대 산하 목장이나 축산관련 시설을 방문, 인민군 및 주민들의 식생활 향상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 금년 10월말 현재 김정일은 황북 봉산군 은정리 염소종축장(6.13), 황남 신원군 계남목장(6.17), 강계 홍주닭공장 및 강계 토끼종축장(7.6), 제757군부대의 4월 16일 염소목장(8.1), 제534군부대농장(10.20) 등을 각각 현지지도

<수산부문>

- 북한은 '90년대 이후 경제사정 악화와 유류공급 부족에 따라 수산부문의 정책은 잡는 어업중심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다어업 중심에서 담수어업 개발 등으로 변화되었음.
 - 특히 최근에는 인민군 부대를 중심으로 메기양식장 등 담수양식어업 개발에 주력
- 지난해에는 함경북도와 평안남도 소재 주요 수산사업소들을 중심으로 연중 생산 동향에 대한 보도가 비교적 빈번하였으나 금년에는 경제관련 보도에서 수산업관련 보도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임.

- 지난 2월 노동신문이 보도한 지난해 수산부문에서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수행한 수산사업소는 선봉수산사업소, 운전수산사업소, 문덕수산사업소, 구미포 바다양식사업소, 5월 24일 대홍수산사업소 등 5개 수산사업소에 불과함.
- 금년도의 생산동향 관련보도로는 황해남도 수산협동경리위원회가 금년도 수산물 생산계획을 전년비 1.2배로 설정(2.25, 노동신문)하고, 문덕수산사업소가 금년 상반기 계획을 6월말 현재 165.1%로 초과수행 하였다는 보도에 불과(8.25, 노동신문)
- 이와 같은 보도동향으로 볼 때 금년도 북한의 수산업부문 생산동향은 전년도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해 연말 이후 KEDO의 대북 중유지원 중단 등 전반적인 유류사정 악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임업부문>

- 북한은 금년 8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최근 10년간의 산림조성 실적을 종합발표 하였음.(8.12, 중통)
 - 지난 10년간 58만 1,280여 정보의 산림에 총 16억 8,536만 7,000그루를 식수하고, 10만 5,720여 정보의 산림을 공업림으로 개조
 - 임업성에서는 북한전역에 40여개의 임산사업소와 임산작업소를 설치하여 매년 수십만㎡의 통나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선전
 - ※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에 따라 최근 3년간 10여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전지역을 수림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10.24, 중통)

- 올해는 국토건설사업을 전 군중운동으로 전개하여 아카시아 나무 등 총 7억 2천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목표를 설정하였음.(3.26, 예산안)
 - 이에 따라 봄철에는 8만여 정보에 4억여 그루 조림계획 목표(3.1, 노동신문)를 세우고, 봄철 국토관리 총동원기간 중에 총 5억 8,300여 그루의 나무를 식수하였다는 실적을 발표(8.24, 방송)
 - 한편 금년 봄철 식수기간에는 각지 협동농장들이 땀나무림 조성을 전국적으로 추진(3.24, 노동신문)한 것이 특징이며, 황해북도의 경우 금년 중 1만여 정보에 아카시아, 잣나무, 이깔나무, 평양포푸라 등 속성수로 산림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3.12, 노동신문)
- 지난해 북한의 임산물생산계획 수행실적은 전체 40여개의 사업소 중 5개사업소가 연간계획을 초과 수행한 것으로 보도하였음.(2.25, 노동신문)
 - 계획목표를 초과수행한 사업소는 연암임산사업소, 신양갱목사업소, 동신갱목생산사업소, 희천갱목생산사업소, 양덕갱목생산사업소 등 5개 사업소
- 금년에도 임업성 산하 식지 임산 및 갱목사업소들이 4월말 현재로 이미 상반기 통나무 생산계획을 115%로 초과수행(5.1, 노동신문)하였고, 일부사업소는 9월말 현재로 연간생산계획을 조기완수 한 것으로 보도하였음.(9.30, 노동신문)
- 종합적으로 볼 때 금년도 임업부문의 조림 및 임산물 생산 계획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평 가

-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농업정책의 일관된 기조는 토지정리, 관개수로건설 등 농업기반시설 강화를 바탕으로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2모작면적의 확대 등을 실현하여 곡물 생산 증대를 도모하는 전통적인 농업발전 전략에 입각하고 있음.
- 그러나 산림의 황폐화로 인한 홍수피해의 빈발, 농업을 지원하는 비료·농약 비닐박막 등을 생산하는 화학공업 부문의 낙후, 농업기계 및 부품을 생산하는 농기계 부문의 생산부진 등이 농업생산성 저하를 가속화시켜왔음.
- 올해는 다행히 기상조건의 호조와 경제관리개선조치 및 그동안의 농업기반강화 정책에 따른 효과, 대북비료 적기 지원 등에 힘입어 금년도 곡물생산량은 작년 보다 약 3% 증가한 425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축산부문은 금년에도 대부분 염소목장 및 염소젖 가공시설 건설에 주력하였으며, 지난 7년 동안의 실적은 북한 전역에 100여개의 염소목장이 건설되고 염소사육두수는 기간 중 3.8배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수산업 부문은 금년에도 유류공급량의 감소로 지난해에 비하여 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보이며, 임업 부문에서는 갱목생산을 중심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생산동향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됨.

나. 광·공업

(1) 세부정책방향

- 금년도 광·공업 부문의 기본과업은 군수산업(국방공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우선적인 힘을 기울이면서 전력, 석탄, 금속공업 및 철도운수 부문을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고리로 보고 이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한편, 경공업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질 좋은 소비재를 대대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임.(1.1 신년공동사설)
- 예산안에서는 예산지출 총액의 15.4%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연료·동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부문 투자액은 전년비 12.8%, 석탄공업부문은 전년비 30% 증액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음.(3.26 최고인민회의 예산안)
 -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안변청년·어랑천·예성강·영원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고, 홍봉 등 중소형발전소들을 완공하여 수십만kW의 발전능력 추가조성
 - 석탄공업 부문에서는 순천, 북창, 덕천, 개천, 구장지구 탄광들의 생산능력을 향상
 - 금속공업 부문에서는 국내 원료·연료에 의거하는 제철·제강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방공업과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요구되는 철강재를 원만하게 생산 보장
 - 기계공업 부문에서는 인민경제 기술개건과 현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생산 공급

- 경공업 부문에서는 투자를 전년비 12.4% 증액하여 기존 공장들의 기술개선과 기초식품공장 및 경공업 공장들에 원료와 자재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질 좋은 제품을 증산한다는 목표 하에 예산을 편성

(2) 광·공업부문 건설 동향

<석탄공업 및 광업>

- o 금년도 예산안에서는 석탄공업부문의 투자를 전년비 30% 증액함으로써 연료·동력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음.(3.26 예산안)
 - 보도내용을 종합해 보면 중소탄광의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댐감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이면서 석탄공업총국 산하 각지 탄광들은 기본굴진을 비롯한 준비굴진, 탐사굴진 등에 주력함으로써 전반적인 석탄 증산을 도모
- o 석탄공업총국 중소탄광국은 1월~7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총 230여개의 중소탄광을 새로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음.(8.10, 중방·8.21, 노동신문)
 - 순천, 개천, 강동지구 중소탄광관리소들 산하에 각각 40여개의 중소탄광들을 건설·조업
 - 평양, 강서, 북창지구 중소탄광관리소들 산하에서는 각각 10 ~ 20개씩의 중소탄광들을 건설·조업

- 유색금속광업 부문에서는 일부 기존 대규모 광산의 새로운 분광산을 건설하거나 시설을 개진확장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검덕광산(연·아연) 「8월29일분광산」 조업 (5.1, 노동신문), 13원형수직갱 등 7개 수직갱 대보수 완료(11.11, 노동신문)
 - 양강도 대봉광산 제1선광장을 개진·확장하여 조업(8.10, 노동신문), 혜산청년광산 봉화선광장 조업(8.31, 중방)
 - 용양광산(마그네사이트)은 지난 7월 제대군인들을 집단 배치하는 한편, 「6월5일갱」 조업(9.18, 노동신문)
 - 상원세멘트공장의 석회석광산은 「선군갱」을 새로 건설하여 조업(6.14, 중방)
-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새로운 대규모 탄광 및 광산 개발은 장기채굴로 인한 부존자원의 고갈과 투자재원 부족으로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임.

<전력공업>

- 금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력부문 투자를 전년비 12.8% 증액하여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서두르는 한편, 비교적 규모가 큰 중소형발전소를 완공함으로써 수십만kW의 발전능력을 새로 조성하기로 하였음.
 - 특히 지난해 12월 KEDO의 대북 중유지원 중단을 전후하여 개최된 내각비상회의에서는 3단계 전력증산계획을 구체화하고 1단계로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국가적 사업으로 설정(1.21, 조선신보)

-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금야강발전소(18만kW)는 김정일 현지지도(4.14)를 계기로 쫓기모임을 개최하고 발전소 건설에 박차(4.28, 노동신문)
 - 예성강발전소(10만kW)는 김정일의 조기완공 지시(1.24) 관철을 위한 충성의 쫓기모임을 개최(3.15)한 후 연내완공을 목표로 군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건설을 추진중이며, 5월말 현재 가물막이와 기초콘크리트치기 공사를 추진 중 (3.15, 6.1, 노동신문)
 - 어랑천발전소(7.3만kW)는 4월 현재 가물막이공사를 완료하고 언제건설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며, 지난 7월20일에는 김정일이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7.20, 중방, 7.21, 노동신문)
 - 원산청년발전소(완공시 수억kWh 생산능력)는 지난해 10월 김정일의 안변청년2호발전소 현지지도시 건설을 지시한 후 3월 현재 굴착공사와 물길굴 뚫기공사가 진행중이며 1호 ~ 4호발전기를 계단식으로 건설할 계획(3.20, 노동신문)
 - 영원발전소(13.5만kW)는 대동강 상류에 건설되는 대규모 발전소로 현재 건설을 힘있게 추진(9.25, 노동신문)
- 새로운 화력발전소의 건설계획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지난해부터는 기존 대규모 화력발전소들의 보수를 통해 발전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음.(2.18, 노동신문)
 - 금년 중에 북창화력은 5개의 발전기들을 대보수하고 4개의 발전기들을 중보수한다는 목표를 설정

- 북한은 이상의 발전설비 대보수가 끝나면 발전기 호기당 1만5천kWh 이상의 전력을 증산하게 될 것으로 전망
- o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전역에서 경쟁적으로 건설되었던 중소형발전소는 최근년간 비교적 규모가 큰 발전소의 건설로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음.
 - 특히 자강도는 금년 중 비교적 규모가 큰 발전소 건설을 통해 2만여kW의 발전능력을 추가 조성할 목표를 설정하였음. (1.30, 노동신문)
 - 철도성 송호철도 1~3호발전소, 연산군 남강군민발전소, 백암군 황토청년발전소, 의진발전소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중소형발전소들이 건설중에 있으며, 신성천철도청년 1·2호 발전소는 완공
- o 그 외에 금년도 중 각 도별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현황은 아래와 같음.
 - 평안북도는 올해에 14개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목표 하에 8월 현재 태천군 운흥발전소 등 10여개의 발전소를 건설 중(8.25, 노동신문)
 - 그밖에 강원도는 내평2호군민발전소를, 양강도는 운총강 6호발전소를 건설 중(8.26, 9.3, 중방)
 - 또한 인민군 제567군부대가 「4월5일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으며, 김정일이 현지지도를 실시(6.19, 노동신문)

- 북한은 올해 수십개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수만kW의 발전능력을 더 조성하였다고 보도하였음.(12.3, 중방)
- 양강도에서 7개의 발전소를 건설해서 삼지연읍의 전기화에 기여한 것을 비롯하여 평안북도 노현·운흥발전소, 평안남도 평원1·2·3호발전소, 황해북도 풍담발전소 완공
- 자강도 홍주청년2호·귀인발전소, 함경남도 금진강발전소 등 7개 발전소 마감단계

<금속·기계·화학 공업>

- 금속공업 부문의 금년도 정책 방향은 새로운 건설보다는 국내 원료와 연료에 의거한 제철·제강기술 도입과 '국방 및 인민경제' 부문에 소요되는 철강재의 원만한 생산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공장 건설 실적은 극히 미미함.
- 연도 중 김책제철연합기업소가 제대군인들을 집단 배치하여 2호해탄로의 기술개건을 위한 대보수사업이 착공 1년반 만인 지난 6월 완료(6.30, 노동신문), 1/4분기중 1호용광로의 보수를 추진(5.21, 노동신문)
- 단천마그네샤공장이 경소마그네샤 생산기지를 새로 건설하여 완공(8.24, 중방)
- 기계공업부문 역시 금년은 기존공장의 기술개건 및 현대화에 필요한 현대적 기계·설비들을 원만히 생산 공급하는데 정책 목표를 뒀으로써 새로운 공장건설 실적은 미미함.

- 구성공작기계공장은 생산라인의 개조를 추진, '가공중심반'과 '숫자조종후라이스반'을 기본으로 하는 유연생산체제가 완성 단계(2.2, 노동신문)
-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는 주장직장 설비 현대화, 단조직장에 새로운 프레스 설치(7.3, 중방)
- o 전력 다소비 산업부문인 화학공업은 신년공동시설 및 예산안의 중점과업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금년도 건설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하였음.
- 2.8비날론연합기업소가 지난 8월 가성소다 생산설비의 현대화를 완료함으로써 생산능력이 과거의 2배(10만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

<건재공업 및 경공업>

- o 경공업 부문의 금년도 정책 방향은 기존 공장들의 기술 개건과 기초식품 공장 및 경공업 공장들이 원료자재를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임.(3.26 예산안)
- 「전국경공업부문일꾼회의」(3.23~24)에서는 1차 소비품 생산과 기초식품 생산량을 늘리는데 우선적인 힘을 기울이고, 지방산업공장들에 자체 원료생산기지를 조성함으로써 인민소비품 증산에 주력하기로 결정(3.25, 노동신문)

- 연도 중 식료품공업부문의 건설 실적은 장훈식료합작회사 및 황남 청단군의 청단기초식품공장이 건설 조업하였음.
 - 장훈식료합작회사에서는 장훈소주를 비롯한 당과류, 알곡 및 과일가공제품 등 10여종의 제품을 생산(9.19, 중통)하며, 청단기초식품공장은 된장, 간장 등 기초식품을 생산(6.1, 중방)
 - 백두산지구 혁명사적지 3단계공사의 주요 대상사업인 삼지연장공장과 수안군, 곡산군, 신계군에 각각 감자 가공공장을 건설 중(8.7·8.21, 노동신문)
- 그밖에 평양 통일거리의 평양껌공장 및 남포시의 강서약수공장을 완공 조업하고,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용기 생산공정 설치공사가 9월 현재 마무리 단계임.
 - 평양껌공장은 연건축면적 4천여㎡로 군인건설자들을 동원, 지난해 8월에 착공하였으며, 원료혼합에서 포장에 이르기까지 자동화 흐름식 생산공정을 채택(10.23, 중방)
 - 강서약수공장은 군인건설자들이 1년여에 걸쳐 기존공장을 개건·확장, 하루 수십만 병의 약수(수소 탄산염 샘물) 생산능력조성(10.22, 중방)
- 금년도 건재공업부문의 새로운 공장 건설 및 설비 개조·보수 실적은 다음과 같음.
 - 평양시 현대화에 사용될 건재 생산을 위해 평양마감건재공장을 완공(조국 4월호), 동공장에서 위생자기직장과 인조대리석 직장의 설비조립이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11.15, 조선신보)

- 백두산지구 개발과 관련 삼지연외장재공장 완공(10.12, 평방) 평안남도에서는 평성시, 덕천시, 문덕군, 대동군, 증산군 등에서 외장재 생산기지를 건설(5.24, 중방), 북·중 합작 스투트공장 조업(11.25, 중통) 등
- 상원시멘트 1호소성로 대보수공사 완료(11.21, 중방), 해주시멘트공장 설비 개조(6.26, 중방), 피현씨리카트벽돌공장의 생산공정 정비보강공사가 완료되어 이공장의 생산능력이 5배로 증가(9.19, 노동신문)

(3) 광·공업부문 생산 동향

- o 북한은 금년이 「정권창건 55주년」임을 강조, 연초부터 광공업부문의 건설과 생산을 독려해 왔음.
- 그 결과 전체 공장·기업소 중 총 1,500여개가 3/4분기 계획을 조기달성 한 것으로 보도(9.6, 중방)

<광업>

- o 광업부문은 무산광산(철광산)과 검덕광산(연·아연)등 대규모 광산의 생산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였음.
- 무산광산은 1월~5월까지 생산계획을 초과 수행하였으며 (5.1, 6.3, 6.9, 중방·노동신문) 9월에는 철광석 생산량이 전년 동기비 2.3배로 증가하였다고 보도(9.6, 중방)

- 검덕광산은 올해 광석생산 목표를 전년비 1.3배로 계획 (4.3, 노동신문)하고, 금년 4월까지 인민경제계획 지표들을 매월 앞당겨 수행(5.18, 노동신문), 광물생산량은 6월 현재 전년 동기비 1.6배로 증가(6.22, 노동신문)하였으며, 7월에도 계획을 109%로 초과수행 하였다고 보도(8.9, 중방)
- o 채취공업성 유색광업관리국은 금년도 4월 계획을 111.9%로 초과수행 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채취공업성 산하 27개 광산과 기업소들이 8월말 현재로 올해 계획을 완수한 것으로 보도하였음.(9.14, 노동신문)
- 연풍광산, 판교광산, 광천광산, 수산광산, 길주절연물광산, 남계광산 등
- o 그밖에 혜산청년광산이 매일계획을 1.2배씩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5.5, 중방)한 것 외에 여타 광산의 활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석탄공업>

- o 석탄공업은 연료와 동력은 물론 화학공업 원료공급원이란 점에서 북한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산업임.
- o 연도 중 주요지구 탄광연합기업소들의 생산 실적에 관한 보도가 비교적 빈번하였음.(연중보도 종합)
- 1/4분기 석탄생산계획의 목표를 조기 달성한 탄광은 덕천 · 북창 · 명천 · 온성 ·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등임.

- 상반기계획을 달성한 탄광은 북창지구의 장안·회양·인포·덕장청년탄광, 안주지구의 청남·성남탄광, 덕천지구의 남양·덕성·서창청년탄광,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등임.
- 석탄공업총국은 전체적으로 3/4분기 생산계획을 정권창건 55돌(9.9) 전으로 조기완수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5.14, 노동신문)
-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산하의 25개 채탄중대가 3/4분기 석탄 생산계획 목표를 달성
- 석탄공업총국 전체적인 석탄 생산 실적은 8월말 현재 전년 동기비 45만여톤을 더 생산하였다고 보도하였음.(8.27, 중방)
- 석탄공업총국 중소탄광국 산하 탄광들도 9월말 현재 연간 석탄 생산계획을 이미 25만 7천여 톤 초과생산(10.8, 노동신문)

<전력공업>

- 북한 전기석탄공업성 부상 신영성은 “KEDO의 중유 공급 중단으로 전력난이 더욱 악화되어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음.(1.18, 1.21 조선신보)
- 평양화력(50만kW)은 보충연료로 사용하던 월 2천~5천톤의 중유 공급 중단으로 14개 보일러 중 6개만 가동되고 있어서 발전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
- 동평양화력(5만kW)도 사정은 같아 현재 평양 및 동평양 2개 화력발전소로 평양시 전력수요의 절반을 겨우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

- 연중 보도내용을 종합해보면 북창화력(160만kW)은 총 15개 발전기중 9개의 중·대보수를 추진 중이며 동평양화력도 발전설비를 대보수중(8.11, 중방)이어서 주요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량이 예년보다 감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창·평양·동평양·청천강·순천화력 등 대부분의 화력발전소들이 1/4분기 계획을 완수한 것으로 보도(4.8~5.8, 노동신문)
 - ※ 전력생산에서 1/4분기 기간 최근 10년간의 최고기록을 돌파하고 지난 7년간의 평균동기실적에 비해 순시전력으로 30만kW를 더 생산(12.7, 노동신문)
 - 그러나 4월부터는 화력발전소의 계획 수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4월 생산계획을 완수한 화력발전소는 청진화력(5.3, 중방)뿐이며, 상반기계획이나 3/4분기 계획의 완수에 관한 보도는 전무한 실정
- 수력발전 부문은 금년 여름 예년에 비해 풍부한 강수량으로 8월말 현재 발전량은 전년 동기비 35% 증가하였음.(9.6, 중방)
 - 수풍발전소를 비롯하여 장자강, 태천, 위원, 남강 등의 발전소가 2월 계획을 완수하였으며 대동강, 장자강발전소는 1/4분기 계획을 완수(5.4, 노동신문)
 - 3월17일발전소는 금년 중 매월 전력생산계획을 초과수행 (10.15, 노동신문)
- 중소형발전 부문은 자강도내 중소형발전소들이 만부하로 매일 3.3만kW의 전력을 생산중이며, 몇년전부터 국가전력을 전혀 받지 않고도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고 있음.(8.11, 노동신문)

금년도 전력·석탄공업 생산관련 주요 보도

시기	내 용	비 고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를 죽이는 심정으로' 석탄 증산에 총력(1.14, 중방) ○ 북창 등 주요 탄광에서 지난 10여일동안 전년비 수천여톤의 석탄 증산(1.17, 중방) ○ 내각 성·중앙기관에서 평남도 탄광 지원사업 전개(1.23, 노동신문) ○ 부족한 전력으로 열차수송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화력발전용 석탄수송에 차질 발생(1.30, 중통) 	KEDO 중유공급 중단 (02.12)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력발전관리국, 평양·동평양·청천강화력, 평남 주요 탄광 2월계획 완수(2.27, 중방)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천, 북창, 순천 등 주요 탄광 1/4분기계획 초과 달성(3.30, 평방)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지 중소형발전소들이 1/4분기계획 조기 완수(4.1, 중방) ○ 1/4분기에 석탄 40만톤 증산(4.17, 노동신문) 	당중앙위 구호 발표 (4.21)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공업총국 정권창건 55주년 기념일(9.9)까지 3/4분기계획 완수 목표 설정(5.22, 중방)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구호 발표후 40여일 동안 수력발전량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6.8, 중방) 	장마 시작 (6.20)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마철을 맞아 7월말 현재 수력발전량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8.6, 중방) ○ 7월말 현재 230여개의 중소형탄광 개발(8.10, 평방)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45만여톤 석탄 증산(8.27, 중방)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말 현재 수력발전량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9.6, 중방) 	정권창건 55주년(9.9)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창화력, 온성탄광 등 겨울철 생산 준비(10.20, 중방)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평남도 올해 과업 완수를 위해 전력·석탄 생산에 주력(11.27·28, 노동신문)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양강도 7개를 비롯 수십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로 수만kW 발전능력 조성(12.3, 중방) ○ 전기석탄공업성 간부들 생산현장 지도사업 전개(12.3, 중방) ○ 올 11월까지 전국적 석탄생산량 전년 동기대비 3% 증산(12.18, 중방) 	

※ 1.1~12.10 북한 보도 종합

<금속·기계·화학 공업>

- 금년도 금속공업부문의 생산동향 보도를 종합해보면 흑색 금속부문이나 유색금속부문 모두가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흑색금속(철강) 부문은 천리마제강이 4월 생산계획을 완수(5.1, 중방)했고, 성진제강이 6월, 7월 및 8월의 강철 및 압연강재 생산계획을 완수(8.12, 중방) 하였으며, 김책제철은 8월중에 매일 철강재를 증산하고 있다고 보도
 - 유색금속(비철금속)공업 부문의 생산동향에 관한 보도는 단천제련소(전기아연 등 생산)가 1/4분기 중요계획 지표들을 초과수행한 것으로 보도(6.1, 노동신문)
- 금년도 기계공업부문 생산동향을 보면 대규모 공장·기업소 중 주로 에너지 및 식량 증산과 관련된 일부 공장들이 생산계획을 완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간계획은 라남탄광기계(12.5, 중방), 구성공작기계(11.25, 중방), 사리원·청진트랙터부속품공장(10.15, 중방), 9월18일 공장(10.11, 중방) 등이 완수
 - 상반기계획은 라남탄광기계, 전천착암기공장, 3월25일공장, 10월5일자동화기구공장, 모란봉자동화기구공장, 사리원 트랙터부속품공장, 평양차량부속품공장 등이 완수
 - 대안중기계(발전설비생산), 용성기계, 5월18일공장, 9월28일 펌프공장 등이 1/4분기 계획을 초과 수행(4.5, 노동신문)

※ 5월18일공장은 김책제철 1호용광로 보수와 검덕광산, 무산광산등의
대상설비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용성기계는 김책제철의 대형
송풍기, 안내차와 장진강발전소의 수차날개 등을 생산 중

○ 한편 공작기계관리국 산하 일부 공장·기업소에서는 새로운
기계제품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음.(8.26, 노동신문)

- 희천공작기계 공장에서는 「희천10호」 선반을 개발

- 구성공작기계 공장에서는 「숫자식 종합가공반」 「숫자식
수평후라이스반」 「숫자식 수직후라이스반」 등을 창안하여
제작하고, 「구성3호선반」의 숫자 조종화를 실현

- 만경대 공작기계공장에서는 「새형의 선 불꽃가공반」을
설계하여 마지막 조립단계

○ 그 외에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이 정권창건 55주년(9.9) 전
생산을 목표로 신형 전기기관차를 제작 중(5.26, 중방)이며,
함북조선소에서는 최근 배수리용 3천톤급 「뜯 독크」를 건조
하여 진수하였음.(11.7, 중방)

※ 이번에 건조한 뜯 독크(floating dock)는 '93년 남포조선소에서
6천톤급을 건조한 이래 두 번째임.

○ 농기계 생산부문에서는 금성뜨락또르(트랙터)공장이 신형
트랙터인 「천리마2000호」(60마력)를 생산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고 보도하였음.(4.9, 노동신문)

○ 화학공업은 90년대 이후 원유도입 감소에 따른 석유화학의
침체, 전력 및 석탄생산 감소로 인한 기초화학제품 생산
체계의 붕괴 등으로 최근 매우 낙후한 산업으로 전락하였음.

-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가성소다 생산설비 현대화(8.26, 노동신문)에 관한 보도 외에는 별다른 보도가 없는 것이 특징

※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을 초과달성한 공장·기업소에 수여하는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의 공동순회우승기 및 표창 대상에는 승리화학연합기업소와 봉화화학공장이 포함되었음.(2.25, 노동신문)

- 고무제품생산 부문에서는 평양고무공장과 하성타이어공장이 금년 상반기 계획을 각각 초과수행한 것으로 보도되었음.(4.20, 7.22, 노동신문)

<건재 및 경공업>

- 올해 예산안에서는 경공업 부문의 투자를 전년비 12.4%로 증가시켜 기술재건을 추진하고, 기초식품공장 및 경공업 공장들에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공급, 질 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한다는 계획을 밝혔음.(3.26 예산안)

- 그 결과 각지 지방산업 공장들은 8월말 현재 된장, 간장, 세수비누 등 1차 소비품의 올해 생산계획을 공업생산액 기준 14%로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도(9.14, 노동신문)

- 그러나 비교적 규모가 큰 경공업 공장·기업소들 중 상반기 생산계획을 완수한 공장기업소의 수는 10여개에 불과한 실정임.(6.1~7.2, 북한 보도종합)

- 신의주신발공장, 9월방직공장, 사리원방직공장, 박천견직공장, 영변견직공장, 평양제사공장, 함흥제사공장, 강서제사공장, 사리원애국수지일용품공장 등이 상반기계획을 완수

○ 정권창건 55주년을 앞둔 8월중 보도에서 7월 계획 목표를 달성한 경공업부문 공장·기업소 수는 총 9개에 불과 하였으나 일부 공장은 7월말 현재 연간계획을 조기완수한 것으로 보도하였음.(8.6~8.19 북한보도 종합)

- 박천견직공장, 영변견직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양화장품공장, 평양일용품공장,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평양고려약가공공장, 개성유리공장, 청남수출피복공장 등이 7월 생산계획 목표를 완수

- 동대원에국편직물공장, 강계경방직공장 및 신의주방직공장, 신의주법랑철기공장, 함흥시동홍산직물공장 등은 7월말 현재 올해 생산계획을 조기 완수

○ 1/4분기부터 비교적 생산이 활발했던 공장·기업소는 신발, 방직, 견직, 제사, 피복, 화장품, 고려약(동약), 수지일용품 등 기초 소비품분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신발공업관리국 산하 신의주·평양·강계·혜산·강서·류원·원산신발공장, 평양구두공장 등이 매일 계획 초과수행(2.9, 노동신문)하였으며, 금년 1월~7월말까지 전년비 900여만족의 신발을 더 생산(8.26, 노동신문)

- 비단공업관리국 산하 각지 공장들이 3월27일 현재 1/4분기 계획을 104%로 초과수행(4.1, 노동신문)

- 평양시 고려생약관리국은 1/4분기계획을 2월 28일 현재 103% 수행(3.26, 노동신문), 평안북도내 고려생약 생산 실적은 전년 동기비 1.2배(3.21, 노동신문)

- 순천제약공장은 국내의 있는 자연물질을 이용하여, 페니실린 종균문제 해결에 성공(8.29, 노동신문)
- 8월 이후 연간계획을 완수한 경공업공장은 식료·제약, 섬유·의류 및 일용품 공업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음.
 - 식료·제약 : 강령장공장(11.10, 중방), 라진식료공장(11.26, 중방), 벽성영예군인식료공장(12.16, 중방), 평양고려약가공공장(8.11, 중방) 등
 - 섬유·의류 : 9월방직공장(11.30, 노동신문), 경공업성 비단공업관리국(12.1, 중방), 보통강구역수출품가공공장(12.2, 중방), 신의주방직공장·청남수출피복공장(12.3, 중방), 평양창광옷공장(12.6, 중방) 등
 - 일용품 등 기타 : 사리원애국수지일용품공장(10.9, 중방), 평양시 지방공업관리국(11.22, 평방) 등
- 건재공업 부문은 평양, 백두산지구 등 도시 및 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 증대 및 품질 제고를 도모하였음.
 -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와 구장시멘트공장, 고무산시멘트공장 등이 8월 현재 전년 동기비 증산 또는 매일계획을 완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8.14~16, 중방)
 - 그밖에 개성유리공장 새로운 유리섬유스레트 생산(8.12, 중방), 천내리시멘트공장과 피현내화물공장이 4월 월간계획을 완수한 것으로 보도(4.27·5.2, 보도)

(4) 평 가

- 북한의 금년도 광공업부문 정책은 중공업을 바탕으로 하면서 기초 소비재 증산을 통하여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음.
 - 이는 핵문제 등 국제적 환경변화 요소들을 고려한 결과로써 외형상 60년대 후반의 정책노선과 유사
- 연도 중 광공업부문은 전력·석탄공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기계공업 부문과 기초식품, 섬유, 신발, 일용품 등 경공업 부문의 건설과 생산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였음.
 - 그러나 금속, 화학, 조선, 농기계공업 등은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올해부터 「에너지문제 해결 3개년 계획」(‘03~’05년)을 착수 하면서 에너지부문 예산을 석탄공업 전년비 30%, 전력공업 전년비 12.8%로 크게 증가시켰음.
 - 이는 에너지 증산을 기폭제로 하여 당면 경제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것으로 평가
 - 중장기적으로 에너지부문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외부와의 협력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석탄 증산 등 내부 예비 동원 및 자력갱생 방식에 주로 의존
 - 석탄공업 부문에서는 대규모 탄광개발보다 각 지역의 중소 탄광 개발에 우선을 두었으며,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대규모 수력발전소건설과 대규모 화력발전소의 설비 보수에 주력한 것이 특징임.

다. 수송 및 정보통신산업

(1) 세부정책방향

- 북한은 험준한 지세와 동서해안선의 분단 등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수송을 철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운수가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함께 경제 건설의 '선행부문'임.
 - 금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철도수송을 경제 활성화의 중심 고리의 하나로 보고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나갈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1.1, 신년공동사설)
 - 이에 따라 예산안에서는 현대적 객차와 화차의 생산을 늘리고 기관차 객차, 화차의 수리·정비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수송능력을 높여나가기로 계획(3.26, 예산안)
- 4월에는 '전국철도일꾼대회'를 개최(4.1~2)하고 철도를 세계적 수준의 현대적인 철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송조직과 지휘의 컴퓨터화, 철도의 고속화·중량화, 전력공급강화, 첨단과학 기술 도입 등의 과업을 수행하기로 결의하였음.(4.3, 노동신문)
 - 이를 위해 대러시아 및 남북간 경제협력 등을 통해 철도 수송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김종태전기 기관차공장의 객차생산 지원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
- 북한은 정보통신산업을 "최첨단 과학기술의 도입과 기술 개건 및 산업 현대화의 기본수단이며, 단번도약을 이룰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00년대에 들어와 대외협력을 통해 기술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

- 이에 따라 광통신케이블망 구축, 컴퓨터 H/W 및 S/W 프로그램개발, 이동통신망 확대 등에 주력
- 특히 이동통신 부문에서는 2007년까지 지방도시와 주요고속도로에 이동통신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올해 총 59개의 이동통신기지국을 건설, 10만명 이상의 가입능력을 조성할 계획(3.22 평양타임즈, 8월호 조국)
- 금년도 예산안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사업비를 전년대비 115.7%로 증액 편성(3.27, 예산안)

(2) 수송 및 정보통신관련 주요동향

<수 송>

- o 북한은 금년 1월1일을 기해 작년 10월에 이어 두번째로 주요철도노선에 신형객차를 배치·운행중임.(’02.12.31, 노동신문)
 - 평양~신의주간(제5~6열차), 평양~두만강간(제7~8열차), 평양~무산간(제9~10열차), 평양~금골간, 제11~12열차
 - ※ ’02.10.10 평양~해산간(제1~4열차) 기운행
- o 수송실적 면에서는 철도성 종합자료를 인용, 연초부터 철도수송계획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음.(3.1, 노동신문)
 - 1월중 유색금속광석 수송계획은 계획의 2배, 양곡 수송은 3배로 초과 수행하였고, 화력발전용 석탄수송에서도 최근 10년간 보기 드문 수송 성과를 이룩했다고 주장

- 서해항만건설사업소에서는 '02년부터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남포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 공사를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3.14, 노동신문)
- 한편 육·해운성에도 6월22일 현재 상반기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한 것으로 밝혔음.(6.24, 노동신문)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관수송사업소도 상반기 정광수송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음.(7.3, 노동신문)
- 북-러는 TKR-TSR 추진을 위한 「제2차 북-러 공동위」(4.1~3)를 개최하고(3.22, KCNA) 러시아 철도당국은 북한의 철도실태 조사(10.23~11.28)를 실시하였음.(10.20, 이타르 타스 통신)
- '6월4일차량공장'에서 과일 수송 전용 화물열차 수십량을 생산하였다고 보도하였음.(8.13, 민주조선)
- 북한은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한간의 주요 경제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동서해안선'(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꾸준히 추진, 지난 6월13일에는 남북철도 연결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를 방송과 신문에 사실보도 하였음.

<정보통신>

- 최근 북한이 중점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분야 사업은 광케이블망과 이동통신망의 건설, 컴퓨터 H/W 및 S/W 개발 등임.
- 광케이블망 설치부문에서는 각 시·군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농촌 리단위까지 확장하는 사업과 전화디지털화 및 장비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10.1, 중방)

- 3월20일통신케이블공장은 매년 계획을 평균 150%씩 초과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10.5, 노동신문)
- 이동통신 부문은 금년 들어와 전국각지에 40개 이동통신 기지국들의 건설·운영이 시작됨으로써 전국 도 소재지들과 주요 고속도로에서 이동통신이 가능하게 되었음(9.14, 노동신문)
 - 평양 및 각 도소재지, 평양-향산간고속도로, 평양-개성, 원산-함흥간 도로와 주요도로 주변의 여러 시·군 등에 이동통신망을 건설·개통
 -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1차적으로 평양과 나선시의 휴대전화 및 전 지역 컴퓨터망 개통(2.1, 조선신보) 이래 최근 2만여대의 휴대전화 보급실적을 보도(12.3, 조선신보)
- 컴퓨터 생산부문은 중국과 합영으로 설립한 「아침 판다 컴퓨터 합영회사」에서 금년부터 펜티엄급 컴퓨터를 본격생산하기 시작하였음.(3.15, 조선신보)
 - 또한 휴대용 개인단말기(PDA) 「하나21」을 개발(9.8, 중방)
- 컴퓨터통신망 부문은 북한 전역에 내부통신망(INTRANET)을 구축·운영하면서 경제 등 특정 부문에서는 외국과도 직·간접적으로 통신망의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무역성 부상 이용남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차단기술인 「광대역시스템」을 개발하여 국제통신망과 연결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9.19 로이더통신)

- 금년 봄에는 외국인을 위한 상업무역용(상품·기념품판매, 여행 등) 영문사이트인 「천리마그룹」('03.2)과 자료검색용 한글사이트 「과학기술전시관」(대형 공장·기업소와 정보기술 소개 등)을 개설('03.3)
- 체신성 산하 조선국제통신국에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여 국제 전자우편(E-mail) 중계서비스 실시(11.28, KCNA)
- 한편 러시아와는 「자동번역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컴퓨터 전문가들을 매년 상호 교류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기로 하였음.

(3) 평 가

- 북한의 금년도 수송정책 방향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철도 수송 발전에 우선을 두고 현대적인 객차와 화차 및 기관차의 생산과 수리·정비실적을 높이는 한편, 운영시스템의 컴퓨터화 등을 통해 수송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는 남북한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의선, 동해선 연결공사의 진척과 북·러간 철도협력 강화 등 대외협력 관계의 발전 추세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연도 중 철도수송부문에서 나타난 주요 실적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주요 철도노선의 신형객차 배치의 마무리를 들 수 있음.
 - 평양을 중심으로 한 주요 철도노선에 금년 1월 1일을 기해 총 12개 열차를 신형객차로 배치 운영하고 있음.

- 북-러간 TKR-TSR 연결사업은 금년도에도 긴밀한 철도협력을 유지하였음.
 - 북-러 양자는 철도협력을 위한 「제2차 북·러 공동위」를 개최하고 러시아에서 북한의 철도실태를 조사하였음.
- 철도·도로건설 실적은 부진하였으나 항만 건설 부문에서는 지난해 착공한 남포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컨테이너 전용부두 공사에서 서해항만건설사업소 일군들이 혁신을 일으키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수 차례 보도
- 한편 육운과 해운부문에서도 올해 수송계획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육·해운성은 상반기계획을 조기 달성한 것으로 발표
- 정보통신산업 부문은 북한이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기술 현대화와 관련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임.
- 최근 북한이 주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광케이블망 구축,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이동통신망 구축, 컴퓨터 S/W 및 H/W 개발과 주요 공장기업소 설비 및 운영시스템의 컴퓨터화 등임.
- 올해의 주요 실적은 전국 도소제지와 고속도로의 이동통신망 개통, 펜티엄급 컴퓨터생산 본격화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바세르나르협약 등 외부요인과 인터넷 미개방 등 폐쇄사회의 특성상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라. 도시 및 주택건설

(1) 세부정책방향

- 연초 「국토환경보호부문일꾼회의」를 개최(1.28)하고 도로 부문에서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로건설과 기술개선을 추진, 합리적인 도로망을 형성하여 경제건설과 주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강조하였음.
- 도시경영 부문에서는 주택과 공공건물들을 건설·보수하여 도·시·군 소재지와 농촌마을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려나갈 것을 지적(1.29 노동신문)
- 금년도 예산안에서는 '국토건설과 도시경영 부문'에 대한 예산을 전년비 18.6% 증액 편성하였음.

(2) 건설동향

<도시건설 및 보수·정비>

- 금년도에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평양시 정비·보수공사, 백두산혁명사적지 건설공사, 사리원·강계·희천·함흥·원산·혜산·평성 등 각도 행정중심지 정비사업, 각지 주택 건설·보수사업 등임.
- 평양시 정비·보수사업은 「평양시 현대화계획」('02~'04년)에 따라 금년 연말까지 평양역을 중심으로 영광·개선문·승리·칠성문거리 등을 개건·보수하는 사업임.

- 보수·정비사업 내용은 상품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상업
봉사망 확장, 도로정비, 건물내외장공사, 상하수도망 보수 등
(3.13, 조선신보)
- 한편 만경대구역의 곤유섬을 유원지로 건설 중(5.22, 노동
신문)이며, 두단호안(5,433m) 공사도 추진 중(8.9, 노동신문)
- 평양-남포간 새 고속도로(천년영웅도로)와 1km간격을 두고
병행하는 새 간선도로를 건설 중(8.8, 노동신문)
- o 양강도 삼지연은 3년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백두산혁명
사적지' 개발계획에 따라 금년 계속사업으로 '체육촌' 건설에
주력하고 있음.(3.9, 평방·5.3, 중앙TV)
 - 건설중인 체육시설은 빙상경기장, 아이스하키장, 체육훈련관,
배개봉스키장, 체육인숙소 등임.
 - 삼지연 '학생소년궁전'은 연건축면적 7,000여㎡로 확장공사가
추진중이며 예술극장, 체육관, 컴퓨터소조실 등을 설치
- o 황해북도 사리원시는 '01.10 김정일의 지시로 주요도시 정비
사업의 본보기로 공사를 추진, 금년 들어 도시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음.(9.13, 평방)
 - 도로포장 36km, 건물보수 70여동, 건물외장재 교체 50여동,
공원 및 휴식터 50여개소 조성, 자전거도로 포장 개설 등
- o 자강도 강계시는 도시정비 공사를 전반적인 도로 보수 및
포장, 공원조성, 공공건물 및 주택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음.
(3.9, 노동신문)

- 남산-서산, 강서-고영지구, 공인-장자산 도로 보수 및 아스팔트(피치)포장, 공원조성 6개소, 공공건물 보수 12개 대상, 주택보수 1만6천세대, 상·하수도 건설 등 추진
- 함경남도 함흥시와 홍남시도 도시정비를 추진중임.(6.28, 노동신문)
 - 함흥시는 새별·정성·사포거리의 대형건물 63동을 개건하고, 성천강다리-양지동간 도로 4km를 확장 및 포장
 - 홍남시는 공공건물 개건 23동, 송흥동-2.8비날론연합기업소간 도로(수천m) 확장 및 포장
- 양강도 혜산시는 2~3년내에 도로포장, 2천여세대의 주택 건설등 양강도의 문화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추진중임.(조국 1월호)
 - 1월 현재 200여 세대의 주택을 건설했으며 김정숙예술극장과 혜산백화점 건설에 주력
- 평안북도는 박천군 맹중지구에 공공건물 100여동, 주택 1,400세대를 신설하여 지방 당정간부 및 중앙 관계기관 일꾼들이 참관토록 하였음.(10.24, 중방)
 - 기존주택 1,300세대와 공공건물 180여동에 대한 보수작업은 9월말 현재로 완료(10.9, 노동신문)
- 평안남도는 신안주지구에 주택 400여세대를 건설하고(10.24, 중방), 공공건물, 급양봉사망, 문화후생시설, 도로 등을 신설하거나 대보수공사를 추진 중임.

<주택건설>

- 북한은 금년도의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3월~4월)중의 실적을 종합하면서 12,630여동의 주택을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도하였음.(8.24, 중방)
- 금년도의 지역별 주택건설 관련 보도를 정리하면 평안북도의 8,200여세대 건설을 비롯하여 북한 전역에서 3만여세대 이상 건설 또는 건설중인 것으로 추산됨.

지 역	보 도 내 용
평양시	중화군 400여세대(6.3, 노동신문), 낙랑구역 두단지구 400여세대(12.8, 중방), 만경대구역 남리부락 70동(12.5, 노동) 제대군관용 230여세대(11.23, 중방) 낙랑구역 두단지구 수십세대(12.12, 평방)
개성시	800여세대(8.25, 평방), 평화리·판문점리 136동(11.26, 평방)
남포시	용강군 30여동(8.29, 평방), 청산리 500세대(10.6, 노동신문)
황남도	130여개 농촌마을(7,000여세대) 조성(5.19, 중방), 청단군 60여세대(4.11, 평방), 배천군 55세대(9.1, 평방)
황북도	은파군 120여동(8.30, 평방), 서흥군 수십동(10.3, 중방), 곡산군 40여동(8.29, 중방) 등 황북도 총 1,500여동 건설(11.15, 평방)
평남도	안주시 400여세대(10.24, 중방), 강동군 90여동(10.17, 노동)
평북도	박천군 1,400여세대(10.24, 중방), 광산군 400여세대(8.26, 중방), 피현군 770세대(11.27, 민주조선) 등 올해 총 8,200여세대 건설(11.23, 중방)
양강도	삼지연군 수천세대 건설·보수(9.28, 평방), 김정숙군 100여동(10.13, 중방), 보천군 88세대(10.30, 중방) 등
자강도	강계시 1,400여세대(9.29, 노동신문), 낭림군 1,200여세대(12.1, 평방), 초산군 500여세대(3.27, 중방), 위원군 수백세대(9.26, 평방)
강원도	평강군 1,000여세대(10.27, 평방), 통천군 1,000여세대(6.12, 중방), 천내군 160동(5.10, 중방), 문천시 36동(4.11, 평방) 등
함남도	함흥시 70여동(8.18, 중방), 영광군 30여동(9.2, 중방), 북청군 30여동(11.11, 중방) 등

(3) 평가

- 금년도 도시 및 주택 건설은 「정권창건 55주년」을 맞아 예년에 비해 활발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평양시 현대화 및 백두산지구 개발에 인민생활공채 판매수입금과 군인건설자를 대거 투입하는 등 국가적으로 집중 지원
- 금년도 북한의 도시 및 주택건설 부문 정책방향은 새로운 건설보다는 도시의 기존 공공건물이나 주택의 보수 및 도로 정비·포장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움직임은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개혁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보편적인 정책성향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김정일의 중국·러시아 방문 결과로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음.
- 특히 평양시 현대화 등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계기로 개방 준비를 본격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 투자재원 및 건설자재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4. 대외 무역 및 경제협력 동향

가. 대외 무역

- 금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은 핵문제 등 대외환경이 악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교역 증가 등에 힘입어 외형상 전년비 3.8% 증가한 23.4억 달러로 잠정 추정됨. (북한의 무역구조 및 월별 추세변동 분석 결과)
 - 대중교역은 8.8억 달러로 전년비 19.2% 증가, 대일교역은 2.7억 달러로 전년비 26.2% 감소로 전체 무역액중 대중·일 무역비중은 49.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어패류·의류·철강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성 에너지·곡물·육류·전기기기 등임.
 - 대일본 주요 수출품목은 어패류·의류·전자전기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차량·전기기기·모제품·인조필라펜트섬유 등임.
- 무역수지는 수출이 24.7% 증가한 9.1억 달러, 수입이 6.2% 감소한 13.3억 달러로 교차하는 가운데 적자폭이 7.9억달러 → 5.2억 달러로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200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실적 추정>

구분	2003년	2002년	증가율
무역총액	23.4억 달러	22.6억 달러	3.8%
수출	9.1억 달러	7.3억 달러	24.7%
수입	14.3억 달러	15.3억 달러	6.2%

나. 대외 경제협력

- 금년도 북한의 대외경제활동은 핵문제로 대중·러·EU 및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음.
- 이중 과거 북한에 대한 최대 경제지원국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강화에 역량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01년, '02년 김정일의 두 차례에 걸친 극동·시베리아지역 방문을 계기로 북한 경제대표단이 동 지역을 잇달아 방문하여 농수산업·임업·건설업·무역·철도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부문별 경제협력을 모색해 왔으며
 - 특히 금년 들어 임업성·경공업성·금속기계공업성·철도성 대표단 등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러간 친선 강화와 경제 교류협력을 모색하였으며, 각종 협정이 체결되었음.
 - 임업부문에서는 금년 2월 북한의 임업상 및 부상이 연이어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여, 북·러간 목재 가공공장 설립 및 벌목공 추가파견문제 등을 협의(2.6 러시아방송, 2.17, 2.24, 중방)

※ 러시아 연해주에는 '03.10 현재 1,400여명의 북한 근로자가 농업, 목재가공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04년까지 3,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

- 경공업 부문에서는 경공업상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여, 북·연해주간 경공업부문 협력확대를 위한 의정서를 체결(7.8 러시아방송)하는 한편, 3차에 걸친 북한상품전시회를 샹트페테르부르크(1.27~2.3)와 극동지역(1차 7.2~7.5, 2차 7.7~7.10)에서 개최하고 신발, 생활용품, 컴퓨터 등 46개 품목을 전시

- 철도 부문에서는 러시아 철도전문가 100여명이 10월 23일부터 핫산-나진간 철도운영 실태와 지형 등 실태조사를 착수(10.20 이타르타스통신이 실태조사 계획을 보도)

※ 러시아는 북한에 TKR-TSR 연결레일의 폭을 표준궤(1,435mm)로 할 것을 제의했으며, 이미 핫산-블라디보스톡(240km)구간의 철도 현대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10.17 이타르타스 통신)

- 연해주 지사가 10.2~4 방북시 나진항 임차 문제 등 북-러 극동지역간 경제협력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였음.

※ 다르킨 주지사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항 등에서 화물 처리가 계속 늘어나 2010년에는 항구의 하역능력이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진항 사용은 연해주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 그 외에 지난 7월에는 금속기계공업상이 러시아를 방문(7.14, 중방)하였고, 관세분야 협력 협정(10월)과 과학기술 협조 의정서(10월)를 체결하였음.

- 러시아는 처음으로 WFP를 통해 1천만 달러상당(4만톤)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결정(6.13 WFP대변인 발표, 7.11, 중통)

- 금년도 북·중관계는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제적인 면보다는 정치적인 면에서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양상을 보여왔음.
 - 10월에는 중국의 우방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북을 통해 북핵문제 및 쌍방간 친선협력 증진문제를 논의하였고 중국은 북한의 경제건설을 위해 가능한 한 경제원조를 지속할 것임을 다짐하고, 무상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변함없는 대북지원 의지를 표명
 - 금년도 중국과의 주요 경제대표단 교류는 과학기술대표단(4월), 금속기계공업성 대표단(7월), 중국 국제 소프트웨어 박람회 참가(9월), 품질감독국 대표단(9월) 중국 방문 등이 이루어졌으며, 11월에는 중국의 기상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기상설비 등을 기증
 - 이외에 중국은 콩 1만 톤 지원(금년 지원계획은 3만 톤) 및 디젤유 1만톤을 무상지원(7.16, 중통)
- 북-일관계는 핵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
- 북-EU관계는 북핵문제가 국제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개별 회원국가 차원의 교류는 활발하지 못하였으며
 - 11월 이후 스위스 외무부 및 스웨덴 외무부 대표단(11월)에 이어 EU 트로이카 대표단(12월)이 북한을 방문, 핵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 협의를 하는 등 대외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

-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제23차 총회(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12월) 및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제10차 총회(12월)에 참석하여 북한이 국제공동체의 일원임을 내세우면서 경제지원을 우회적으로 역설하고 있음.
- o 동남아시아와의 경제협력은 베트남과 다방면의 협력이 두드러진 가운데 인도네시아, 몽골 등과 그동안 다져온 친선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을 쏟았음.
- 특히, 북한은 경제관료 12명의 경제연수단과 최고인민회의 법률대표단(8월), 5명의 무역사절단(9월), 국가품질감독국 대표단(11월), 무역성 경제대표단(11월), 군 정치일꾼대표단(12월)을 잇따라 베트남에 파견하여 양국간 경제교류협력 증진을 모색하였음.

다. 특구 개방 관련 후속 조치

- o 북한은 지난해 '02.9.12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경제특구)으로 지정하고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한데 이어
- 금강산관광지구(10.23) 및 개성공업지구(11.13) 지정하는 등 개방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내부적인 개혁·개방 의지를 보여 주었음.
- o 금년에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업지구 관련 「개발 규정」 및 「기업창설 운영규정」(4.24), 「세금규정」 및 「노동 규정」(9.18), 「세관규정」, 「관리기관 설립운영 규정」, 「출입·체류·거주규정」(12.11)을 채택하였고

- 6.30일에는 개성공업지구 건설 착공식을 개성공단 1단계 지역(구 관문군 평화리)에서 남북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12.11일에는 개성공단 개발사무소 착공식 개최, 12.22일에는 현대중기관리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는 등 후속조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금강산관광지구 관련 「개발규정 및 기업창설운영규정」을 채택(5.12.)하였고, 금강산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11.6)하였으며, 금강산 관광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11.19)하였음.

< 주요 외국 경제대표단 방북 동향 >

사 기	대표단 구성	활동내용
2. 8 ~ 11	인도네시아, 대통령특사 「나나수 뜨레스나」(「메가와티」 대통령 정치고문)	
2.14	몽골, 친선대표단 (단장 : 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 기찌레마)	
3. 1 ~	일본, 「조총련」재정일꾼 대표단 (단장: 중앙상임위 위원장 최병조)	
3. 4 ~11	유엔아동기금(UNICEF) 동아시아 및 태 평양지역사무소 소장 「메흐르 칸」일행	
3.11 ~13	「현대아산」 정몽헌회장 일행	「아-태」측과의 경제협력 현안 협의차
3.20~22	유엔 사무총장 특사 「모리스 스트롱」 일행	
3.20 ~4.3	조총련 일꾼대표단(단장 : 국장 배진구)	
3.22	폴란드 「오빠뚜브군 친선대표단」(단장: 同지부 위원장 겸 「폴-조친선협회」위원장 「스파니스와프 도베크」)	

시 기	대표단 구성	활동내용
3.25 ~ 4.1	러시아 보건일꾼직맹대표단 (단장 : 부위원장 「겐나지 웨르고프」)	
5.16~20	스위스 외무상 「미셸린 칼미 레이」 일행	
7.29	몽골 국가대회의 대표단(단장: 「슈, 공가 도르귀」 국가대회의 환경 및 농업문제상 설위 위원장)	
8. 7 ~ 9	중국 외교부대표단(단장: 「왕의」부부장)	
8. 9	중국 · 독일 · 태국 · 말레이시아대표단	제6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참가차
8.20	중국 과학기술대표단	제39차 「조 · 중과학기술협조위 원회」 의정서 조인
8.28 ~9.11	러시아 원동지역사진전시회대표단(단장: 「올가 말제바」)	
9. 8	러시아연방 원동연방구 주재 대통령전권 대표 「콘스탄틴 보리소비치 폴리콥스키」	
9.20	시리아 외무성대표단 (단장: 「이사 다루위시」 부상)	
9.21	러시아 과학기술대표단	제4차 「북 · 러 과학기술분과위」 의정서 조인
9.24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대표단 (단장: 길림성장 겸 省궈 부서기 「홍호」)	
10.2 ~3	러시아 연해변강행정장관 「세르게이 미하 일로비치 다르킨」	
10.14 ~18	WHO 동남아지역국 국장 (「우톤 무크타르 라페이」) 일행	
10.14 ~18	터키 노동조합연맹대표단 (단장: 총서기 「쉐세인 까라꼬쯔」)	

시 기	대표단 구성	활동내용
10.18	베트남 외무성대표단 (단장: 부상 「레반 방」)	제12차 북·중 기상과학기술 교류협조 조인
10.29 ~31	중국 국가대표단 (단장: 全人大 상무위원장 吳邦國)	
11.11 ~	중국 기상국대표단 (단장: 「유윤금」 부국장)	
11.13 ~ 17	러시아 원동국립기술종합대학 총장 「젠나지 뚜르모프」	
11.15 ~18	KEDO 사무총장 「찰스 카트먼」 일행	
11.15 ~ 18	스위스 외무성 대표단 (단장: 「로돌페 임호프」 외무성 아시아 및 오세안주 담당국장)	
11.15 ~ 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장 「쑤띠요쏘」 일행	
~11.15	인도네시아 외무성 대표단(단장: 「마까림 위비쏘노」 亞-太 및 아프리카 총국장)	
~11.18	중국 기상국대표단(단장: 부국장 「유영금」)	
11.19	몽골수상 「남바린 엔흐바야르」 일행	
11.22 ~25	스웨덴왕국 외무성대표단 (단장: 총정치국장 「안데르스 리텐」)	

< 주요 북한 경제대표단 외국방문 동향 >

시 기	대상국	대표단 구성	활동내용
1.25 ~ 2.1	태국	체신대표단 (단장 : 이금범 체신상)	· 국제기구(UNDP, ITU)의 지원·협력 하에 선진기술 도입 · 체신협정 체결 등 대외협력 강화
2. 3 ~ 17	러시아	임업성대표단 (단장 : 이상무 임업상)	· 원동지역 방문
2.10 ~ 15	러시아	평양시대표단 (단장: 양만길 인민위원장)	
2.11 ~ 14	남한	경제협력추진위 (단장 : 국가계획위 제1부원장 박창연)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제4차 회의 참가
2.24 ~3.10	러시아	임업성대표단 (단장 : 전명국 부상)	원동지역 방문
2.26	중국	평안북도 친선대표단 (단장: 인민위원장 박경삼)	
3.22 ~4.11	러시아	철도성 대표단 (단장 : 부상 김용강),	「조-러철도공동위」 제2차회의 참가차
3.24 ~30	중국	「농근맹」대표단 (단장: 부위원장 주상전)	
3.27	쿠바, 브라질	「청년동맹」대표단 (단장 : 비서 김영철)	
3.29	중국	기상수문국 대표단 (단장: 부국장 고상복)	「국제기후토론회」 참가

시 기	대상국	대표단 구성	활동내용
4. 7 ~ 20	중국	과학기술교류대표단 (단장: 조선과학기술 총연맹 중앙위 부위원장 장낙천)	
3.29	중국	기상수문국 대표단 (단장: 부국장 고상복)	「국제기후토론회」 참가
4. 7 ~ 20	중국	과학기술교류대표단 (단장: 조선과학기술 총연맹 중앙위 부위원장 장낙천)	
4.17	쿠바	육해운성대표단 (단장:김영일 육해운상)	
4.18	러시아	조선컴퓨터센터 대표단	자동번역프로그램 공동개발협정
4.26 ~ 5.8	영국	외무성대표단(단장: 최수현)	「조선-유럽동맹관계에 관한 토론회」 (5.2, 런던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참가
6.30 ~ 7.10	러시아	경공업대표단 (단장: 경공업상 이주요)	경제 전반에 걸친 부문별 경제협력
7.14 ~ 31	러시아, 중국	금속기계공업성대표단 (단장: 금속기계공업상 전승훈)	
8.11 ~ 16	러시아	외무성대표단 (단장: 부상 궁석웅)	
9.13 ~ 25	중국	국가품질감독국대표단 (단장: 부국장 손병학)	「품질인증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 9.16		보건성대표단 (단장: 부상 최창식)	WHO 동남아시아 제21차 「보건상 회의」 참가
9.20 ~ 23	중국	黨 중앙위 국제부대표단 (단장: 부부장 김태중)	

시 기	대상국	대표단 구성	활동내용
9.20 ~27	중국	평양시친선대표단 (단장: 평양시 인민위 부 위원장 김종식)	
10.6 ~16	러시아	세관총국대표단 (단장: 총국장 김정섭)	
10.13 ~26	중국	「국가관광총국대표단」 (단장: 부총국장 박치복)	세계관광기구 제15차 총회(중국 北京) 참석
10.14 ~25	중국	과학원대표단 (단장: 원장 변영립)	「3세계 과학원 9차대회」 및 중국 과학원 창립 20돌 기념행사 참가
~11.13	라오스	당 국제부대표단 (단장: 부부장 김태종)	「규격화·계량·품질감독분야에서 의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11.13 ~	베트남	국가품질감독국대표단 (단장: 국장 김형철)	
11.15 ~	베트남	정부경제대표단 (단장: 무역성 부상 구본태)	
11.24	러시아	외교단사업총국대표단 (단장: 총국장 최수일)	
12.10 ~12	국제통신 연맹(ITU)	제1차 정보사회 세계정 상회의 대표단 (단장 :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 부위원장 김영대)	제1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참가 연설

라. 평 가

- 핵문제 등 대외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역규모가 증가 추세를 나타낸 것은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의 증대, 북한내부의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수요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교역의 증가 추세와는 달리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핵문제, 인권문제 등 당면 최대현안 문제들의 미해결로 인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특구 개발과 관련 지난해 11월 채택한 바 있는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의 후속조치로 하위규정들을 잇달아 발표한 것은
 - 핵위기 속에서도 그 동안 담보상태에 있었던 특구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제 개방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 남북간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시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한편
 -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원활한 물자공급을 통해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임.

- 향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추진방향은 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러시아경제의 급속한 회복추세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이들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재구축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남북경제협력의 적극화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따라서 북한의 대외무역총액에서 남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28%)수준을 넘어 30~35%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당분간 북한 경제의 대남의존도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

5. 경제관리개선조치 추진 동향

가. 경제관리개선 추진방향

- 북한은 신년공동사설과 예산안을 통해 2003년도의 경제관리 개선 방향과 과업을 제시하는 한편, 신문보도를 통해 경제관리개선 관련 김정일 영도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속조치들을 단행하였음.
- 신년공동사설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자면 경제관리를 개선해야한다”고 전제하고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를 관리·운영해야한다”고 다시 강조하였음.(1.1, 신년공동사설)
- 예산안에서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 향상, 일 생산 및 재정총화제도의 강화와 실리적인 생산·경영활동의 실리 제고 등을 과업으로 제시하였음.(3.26, 예산안)
 - 생산의욕 제고와 관련해서는 경제관리에서 평균주의를 없애고, 일한 만큼, 번 것만큼 보수를 주는 ‘번수입 분배 방법’에 의한 독립채산제와 협동농장 분조관리제를 강화
 - 경제관리 방법과 질서개선에 맞는 경제관리 규정과 세칙을 정리하고 이를 정확히 집행하며, 모든 공장·기업소에 ‘돈에 의한 계산체계’와 ‘일 생산 및 재정총화제도’를 강화

- 지난 2월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발표 30돌을 기념하는 노동신문 기사를 통하여 경제관리개선과 관련한 김정일의 시책을 현명한 영도로 찬양하면서 경제관리개선에 관한 김정일 이론의 체계화를 시도하였음.(2.1, 노동신문)
- 김정일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①김일성이 제시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원칙을 고수하면서 ②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며 ③굳어진 사고관점을 버리고 혁신적 안목에서 대담하게 사고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
- 경제관리개선의 주요방침은 ①계획화사업에서의 현실성 보장 방침 ②합리적 관리·운영과 경제적 효율성 향상 방침 ③계획화 사업체계와 방법의 개선 방침 ④과학기술 발전에 기초한 경제관리체계의 질서 확립 방침 등으로 정리

나.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변화동향

- 2003년도 북한보도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미 지난해부터 점진적으로 7.1경제조치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생산활동 면에서는 지난해부터 전력·석탄 등 에너지 산업 부문의 생산과 공업총생산액 등 주요 경제지표상 전년비 증가율이 높아졌음.
 - '02년도 전력생산량은 전년비 29%, 공업총생산액은 전년비 12% 증가(4.2, 조선신보)
 - '03년도 7월말 현재 석탄생산실적은 전년 동기비 45만여 톤 증산(8.27, 중방)

- 상업유통체계 면에서도 소비재와 서비스공급 등에 시장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음.
- '02년 12월부터 '장마당'에서 농산물 이외의 공산품 거래도 허용
- '03년 3월부터는, 평양시에 있는 '농민시장'을 '시장', '종합시장'으로 개칭하고 이를 북한 전역으로 확대(4.1, 조선신보, 6.10, 중통)
- 시장기능 강화에 맞추어 평양의 주요 거리에 상업시설의 개건·증축·신설공사를 대대적으로 전개(8.28, 노동신문)
- 승리거리의 창전4거리, 칠성문거리의 서평양백화점, 개선문거리의 월향지역, 10-9구역의 상업시설들을 개건·증축
- 버드나무거리의 47-1구역, 51-7구역에 상업시설 신설공사 추진
- 특히 상업봉사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원자재 공급을 위한 종합도매시장 운영도 구상 중(4.28, 조선신보)
- 국영상점 경영권의 개인·기업 위임, 백화점 점포 분양, 생산자와 판매자간의 '합의제 가격' 도입 등 매대·점포 증가로 사적인 상업활동 범위 확대
- 자동차 대형 상업 광고판을 평양 시내 및 공항·역·고속도로 등 6곳에 설치 허가('03.9), 상표의 역할과 상표권 보호의 중요성 강조('03.3, 경제연구)

- 인민봉사국 낙연합작회사는 평양시 최대 주택지구인 통일 거리에 16개의 '군고구마 매대'를 설치하고 주부들을 채용하여 판매
 - 필요한 고구마는 기업이 원산지에서 직접 구입보관하고 직접 판매함으로써 품질을 향상
 - 일정금액 이상의 매상은 종업원 보수에 돌림으로써 봉사원들의 의욕을 자극하는 효과를 달성
 -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음 단계 사업으로 시내의 여러 봉사부문에 각종 원자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매시장을 구상 중
- 북한의 시장에서는 쌀 등 주요 물품가격이 일정한도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등 시장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영(12.22, 조선신보)
- o 그러나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과 화폐 발행고 증대, 물자공급 부족 등으로 농민시장 물가의 인플레이션 및 대미달러 환율(암시세)의 지속적인 상승 등 부정적인 효과도 유발되고 있음.
 - 7.1조치 이후 명목임금은 평균 2000~3000원 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농민시장 물가는 3~5배 이상 상승
 - 대미달러 환율은 7.1조치 직후 1달러당 150원에서 '03년 12월 현재 1달러당 1,000원(암시세)으로까지 상승

- 이와 같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시장경제 이론에 입각한 적자재정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금년 5월부터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주민들의 유희화폐 자금을 흡수하여 투자를 증대 시킴으로써 통화량의 조정과 인플레이 억제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

다. 평 가

-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원칙 고수 아래 철저한 경제적 실리보장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실리보장을 위해 김정일이 “굳어진 사고관점을 버리고 혁신적 안목에서 대담하게 사고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개혁에로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금년도 북한경제 동향에서 나타나고 있는 7.1경제조치의 성과 및 후속조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긍정적인 측면은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가시화 및 시장기능에 대한 관점 전환, 사적인 상업유통 확대
 - 식량 및 소비품 가격과 집세 등을 인상하고, 임금을 현실화함으로써 가계재정의 개인책임제를 유도함으로써 자기가 받은 노임으로 살림살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실리’를 중시하는 「경제마인드」 생성

- 계획경제의 분권화, 공장·기업소에 자율권 부여, 수익에 따른 분배의 차등화 조치 등을 통해 기업의 이윤마인드 고취
- 7.1조치이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 생산의욕이 향상되고, 일부 산업부문에서 생산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등 경제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임.
-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단기적으로 생필품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함으로써 인플레 유발과 주민들의 빈부격차 및 가격과 환율의 이중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음.
-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최대현안인 핵문제가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될 경우 북한의 경제개혁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6. 종합평가 및 전망

가. 종합평가

(1) 대내외 정책평가

- 대내적으로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대내 공급능력 확대에 주력하였음.
 - 선행부문의 혁신적 추진, 경공업 현대화를 통한 인민소비품의 대대적 생산, 종자혁명·감자농사혁명·두벌농사·토지정리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농업생산 증대
- 한편 경제관리 및 대외협력부문에서는 경제건설의 양양을 위한 “사회주의 원칙 하에 가장 큰 실리 확보”와 첨단과학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강조하였음.

(2) 생산 요소별·분야별 생산동향 평가

- 금년도 북한경제는 핵문제 등 현실적인 대외 협력여건 악화 및 대내 공급능력 부족으로 아직까지는 7.1경제조치의 효과가 기대한 것만큼 큰 성과는 없으나, 유통부문 system에서의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등 향후 경제관리개선에 있어 긍정적인 면도 가시화 되고 있음.

- 생산요소별로는 경제상황 개선을 위해 부족한 대내공급능력 확대에 주력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였음.
 - 이례적으로 팽창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인민생활공채」 발행, 대내 투자 확대를 시도
 - ※ 2003년도 예산증가율은 '74년(실적기준 16.3%)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인민생활공채」는 판매실적 저조로 판매기간을 4개월 연장
 - 인민생활공채 판매 수익금은 평양시 등 도시정비, 발전소 건설 및 개건·현대화, 토지정리 사업 등에 집중 투입
 - 7.1 조치 이후 발생한 잉여 노동력의 활용을 위해 평양시 정비사업 등 대규모 건설사업 활발히 전개
 - 과학기술 중시사상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하면서 연구 개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으나, 핵 문제 등으로 첨단 선진과학기술 도입을 위한 대외과학기술 교류협력은 저조
 - 전시회 등 국내 과학기술행사 집중 개최('02년 16회 → '03년 27회)
 - 과학기술협정 체결 감소('02년 9개국 11건 → '03년 5개국 7건)
 - 다만, 펜티엄Ⅳ급 컴퓨터 생산(3.15), 이동통신기지국 40개 건설(9.14), 전국적 광케이블망 구축(10.1), 휴대전화 2만대 보급(12.3) 등 IT부문 성과 시현

- 경제 각 부문별로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기간산업부문의 생산부진이 여전한 가운데, 노동 투입 증가 및 사적 상업활동 확산에 의존한 소폭 성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상업유통부문은 대내 시장 기능을 공식 상업유통부문의 한 축으로 활용·강화하면서 매대·점포 증가, 개인 서비스업 및 중개업 조직화 등 사적인 상업활동 범위 확대
 - ※ 그 동안 기피해 왔던 「경제개혁」, 「시장」 등의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등 시장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 최근 북한은 평양에는 10여개, 시군별로는 1~2개의 시장을 건설하여 북한 전역에 총 300여개의 시장을 조성하는 계획 추진
 - 농업부문은 기상조건 호조, 남한의 대북 비료지원 등에 힘입어 곡물생산량은 전년 수준(413만톤)을 상회한 425만톤 수준으로 추정(전년비 약 3% 증가)
 - 건설부문은 잉여 노동인력 및 인민생활공채 판매 수익금 등을 활용함으로써 생산부문 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
 - ※ 토지정리사업, 백마-철산 물길공사, 평양시 등 도시정비사업,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추진 등
 - 기간산업부문은 중유공급 중단 등 대외적 경제협력환경이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원자재 부족으로 공장가동률 정체, 기간산업의 생산 미미
 - 대외경제협력부문은 대외무역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핵문제 등으로 경제건설에 필수적인 외화난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나. 전 망

○ 내년도 북한 경제는

- 공급량 확대 및 북한 원화의 적정환율 유지(인플레이 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아래
- 2003년도와 마찬가지로 대내적으로 각 공장·기업소의 생산 정상화 및 상업유통부문의 기능 강화 등 올해의 변화기조를 가속화하기 위해
- 시장 확대조성, 사적 소유권의 점진적 확대, 환율 및 재정 정책의 변화 등 필요한 제도적 보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004년도에는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제적 고립화와 맞물리면서 북한의 대남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개성공단건설사업·금강산관광특구 개발 등 남북협력사업에 적극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판단됨.

<부록 1>

< 2003년도 경제분야 관련 행사 개최 현황 >

시 기	내 용
1. 1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등, 신년 공동사설 「위대한 선군기치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발표
1.5~25	제18차 「전국과학기술축전」(1.14, 중동)
1.23	「직총」 중앙위 제49차 전원회의(중방) 「공동사설」 관철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1.7-13 중·평방·노동신문 / 1.23 조선중앙통신)
1.24	「농근맹」 중앙위 제44차 전원회의(1.25, 중방)
1.26~7	전국 농업부문 일꾼회의(1.28, 중방)
1.28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중방)
2.10	철도운수부문 연구토론회(2.11, 중방)
2.15	「2.16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4.25문화회관)
3. 2	전국 각지의 일꾼 - 근로자 - 청소년 학생들, 「植樹節」 57돌 즈음 「나무심기 꺾기 모임」 진행(대각청년 언제지구 등) 軍 육·해·공군부대들, 「植樹節」 즈음 「전군중적 운동으로 봄철 나무 심기를 힘있게 벌일데, 대한 「김정일의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꺾기모임」을 각각 진행 「농근맹」근로자들, 「봄철나무심기를 힘있게 벌이기 위한」 꺾기모임 개최(강서구역 청산리) 「여맹」원들, 「봄철나무심기를 힘있게 벌이기 위한」 꺾기모임 개최(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
3.12	제1차 「전국나노과학기술발표회」 진행(3.11-12, 평양)

시 기	내 용
3.24	「전국경공업부문 일꾼회의」 진행(3.23-24, 인민문화궁전)
3.26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회의」 진행(만수대의사당)
4. 1	「전국철도일꾼대회」 개막(인민문화궁전)
4.14	「청년건설성과전시장」 개막식 진행(청년중앙회관)
4.23	철도성 종업원들 쉼기모임(철도성회관)
5. 3	평남 안주시 송악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이기 위한’ 쉼기모임
8. 5	黃北 건설자들, 김정일의 말씀(2003.6.13, 연건평 2,840여㎡ 규모의 현대적 고구마가공공장 건설)을 관철하기 위한 쉼기모임(신계군)
8.11	제6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개막식(3대혁명전시관)
9. 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만수대의사당)
9.16	제8차 「전국정보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9.15-16, 인민대학습당)
9.17	「용양광산 6월5일쟁」(함남 소재) 완공 조업
9.24	제30차 「전국농기계전시회」(※30여種 240여점 출품) 진행(9.22-24, 평양) 「전국4.15기술혁신돌격대들의 기술혁신경기 총화회의」 진행(인민대학습당)
10.16	「전국 주민용 연료 및 탄소재료부문 과학기술발표회」(10.15-16, 김책공업종합대학)
10.29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 (10.29~30, 인민문화궁전)
11.27	「전국지질탐사부문 과학기술발표회」(11.24-26) 진행(중방)
12.12	제6차 「전국양어부문 과학기술발표회」(12.10-12, 평양) 진행 보도(평방)

<부록 2>

< 2003년도 주요 경제건설 실적 >

시 기	내 용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장시멘트공장」, 시멘트원료를 해결하기 위한 “6만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완수” (1.4) · 함남소재 단천청년발전소 준공(1.8) · 대성은복봉사소(상업봉사: 전자제품) 조업(1.18, 중방)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 및 벽동군 양정사업소 및 신기군 신국저수지 등, 김일성 및 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준공(2.20, 중방)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북 서흥군 범안리 일대에 문화위생시설이 갖춰진 농촌살림집들 건설 (3.5, 중방) · 최근 몇 해동안 전국적으로 8만 6천 9백여 세대의 농촌살림집들 건설 (3.5, 중방) · 삼지연군 배개봉기슭에 ‘각종 체육훈련관·과외체육학교·교사·식당·숙소 등 현대적 시설을 갖춘 체육촌’ 건설 보도(3.9, 평방) · 평안남도 지역의 개천-태성호 지선물길(180여km) 공사 완공 보도 (3.18, 중방) · 평양철도국 「신성천철도 청년1호·2호발전소」 조업(3.28)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선저수지’(咸北道 라선시 소재) 준공(4.11) · 「청년건설성과전시장」 개막(4.14, 청년중앙회관) ·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에 「김일성·김정일혁명사적비」 건립 (길이: 11.10m × 높이: 3.8m, 무게 246t) 준공(4.14) · 구성시 남산협동농장 및 안악군 룡산·월지협동농장 등,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적표식비」 건립 준공(4.18, 중방) · 「검덕광산」 노동자-기술자-일꾼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위의 「감사문」전달모임 및 새로 개발된 ‘8.29일 분광산’ 조업(4.30)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포시 와우도구역에 ‘군민거리’ 건설(5.4, 중방) · 강계시내에 “천m 구간의 서산거리 건설”(5.21, 중방) · 「청단기초식품공장」(※간장, 된장 등 생산) 조업(5.31) · 평원군, ‘개천-태성호 물길’ 평남 지선 통수식 진행(5.15)

시 기	내 용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북 사리원시 인근에 '연산군민발전소' 건설 보도(6.7, 평방) · 남강(平南道 양덕군 거창령 > 黃北道 승호구역 리천리의 200.5km)에 수백m의 현대적인 다목적 '다리' 건설 보도(6.22, 평방)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 전국 각지 2천여km 도로건설(7.2, 평방) · 7만여동 주택과 공공건물 건설·보수(7.2, 평방) · 1,600여km의 강하천 정리(7.2, 평방)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계시 당원-근로자들의 1,400여세대 가정집 건설(8.8, 중방) · 「대봉광산 제1선광장」 조업(8.10)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시 형제산구역 보통강내 「제산軍民다리」 준공(9.14)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남소재 「덕성인민유원지」 준공(10.8) · 평북 박천군내 1,400여세대의 살림집과 근 100동의 공공건물-문화후생시설들의 '집들이'(10.10, 중앙TV) · 삼지연군에 현대적 「외장제공장」 건설(10.12, 평방) · 김정숙군 장항리에 "100여동의 현대적 살림집 건설(10.13, 중방) · 「대관메기공장」(平北 대관군 온천지구) 완공 조업(10.15) · 평북 소재 「운산메기공장」 조업(10.16) · 강동군 용흥리에 "60동의 문화주택(※아랫방과 옷방, 창고와 집짐승우리 등으로 구성된 1동 1세대 농촌살림집) 보급"(10.20, 평방) · 「강서약수가공공장」 조업(10.21) · 평양시 통일거리에 현대적인 「껌공장」(연건평: 4,000㎡) 완공 조업(10.23) · 黃南 해주시 소재 「수양산성유원지」 개건 확장(3.500m 유람도로 포장 및 수영장·낚시터 등) 준공(10.27) · 중소형발전소 「평원 1·2·3호 발전소」(平南 평원군) 건설 준공(10.31)

시 기	내 용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강도에서의 최근 한달 동안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사업」 전개(11.1) - 52km 도로와 10개 다리 건설 - 470km의 도로 기술개건과 정리 - 150km의 제방 및 옹벽구축공사 등 · 「백마-철산물길공사장」(평북 소재), “4만산 밭파 성공적 진행”(11.4, 중방) · 평남 북창군, 자체의 힘으로 개건 확장한 「上水道시설」 준공식 진행 (11.5) · 서흥군내 일꾼-근로자들의 국토관리사업 성과(11.11) - 서운강 기슭에 8천여㎡ 모자이크 그림판 - 10여개의 조각, 11동 60여점의 각종 놀이시설 건설 · 북창군에서 653만 7천여개의 구덩이파기 완료 및 정산橋 건설·30여동의 살림집 건설 등(11.11) · 黃北道の 국토관리사업(11.15) - 살림집 1,500여동 건설 및 190여동 보수 - 140km 도로포장 - 650만여그루 植樹 등 · 수백리에 달하는 「백마-철산 물길」(평안남도 소재) 배수굴 공사 早期 완공 (11.18) · 평양시, 제대군관들에게 230여세대의 살림집 건설 제공(11.23, 중방) · 분계선 지역인 “개성시 평화리·관문점리 등에 4개 마을 및 현대적 살림집 136동 건축” (11.26, 평방) · 평북 「백마-철산물길공사」, 2만산 밭파 성공(11.26, 중방)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군 금성간석지 개간전투 쉼기모임 및 착공식(12.3, 중앙TV) · 평양시 낙랑구역 두단지구에 “수십세대의 살림집 건설” 보도(12.12, 평방) · 농업성의 지도아래 황북-평남북 등지에서 “수 만개의 감자저장소 건설” (12.17, 중방)

< 부록 3 >

2003년도 북한경제 주요일지

■ 1.2(목)

- 녹음 보도, '승리자의 긍지와 드높은 결의에 넘치는 조국강산' 題下로 새해를 맞은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등 전국 각지의 공장-기업소 일꾼들의 공동사설에 제시된 강성대국 건설의지 반향(중방)

■ 1.3(금)

- 황해남도 농촌경리위 위원장(이만성, 前김보경과 교체) 및 부위원장 등을 한해 '토지정리·농산물 증산투쟁운동 전개' 등 새해 道사업계획 반향(중방)

■ 1.4(토)

- 조선인민군 경비대 방희로소속부대 군인들, 문덕군과 안학군의 협동농장들에 600여톤의 거름 지원
- 「구장시멘트공장」, 시멘트원료를 해결하기 위한 “6만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완수” 보도

■ 1.5(일)

-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김정일의 현지도 1주년 기념보고회 진행
- 평안북도, 김일성의 농업부문 현지도(73.1.3-6) 3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신의주)
- 「농업성」일꾼들, 만경대농장·칠골농장·사동구역 인민협동농장 등에 새해 '공동사설' 전파 및 영농물자(비료 등) 전달 사실 보도(중방)

■ 1.6(월)

- 함남소재 「설비조립연합기업소」 창립 4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

■ 1.8(수)

-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청년전위들,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석탄생산에서 선봉대·돌격대 영예를 빛내어 나가기 위한' 켈기모임 개최(2.8 직동청년탄광)
- 「고난속에서 실적을 올린 일꾼」 題下로 김종집(6.1일청년전기기구공장 지배인)을 소개(중방)
- 함남소재 단천청년발전소 준공식 진행

■ 1.9(목)

- 철도성, '김정일의 선군혁명 영도 및 새해 총진군을 다그치기' 위한 쉼기 모임 진행
- 과학원 합홍분원 혁명사적보존연구소장 엄철(후보원사, 교수, 박사)에 김정일의 「생일 70돌상」 전달소식 보도(평방)

■ 1.10(금)

- 황북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농장원들, '새해 공동사설 제시과업 관철' 쉼기모임 진행

■ 1.11(토)

- 이광호(과학원 원장, 원사, 교수, 박사)의 實談, '위인의 첨단과학세계를 되새겨 볼 때마다'(평방)
- 「김책건설사업소」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진행(평방)

■ 1.12(일)

- 평남 장안탄광 종업원들, '새해 공동사설 제시과업을 관철' 쉼기모임 진행
- 농근맹원들, '새해 공동사설 제시과업 관철' 쉼기모임 진행(평방)

■ 1.13(월)

- '녹음 보도: 공격전의 앞장에 선 전력생산자들' 題下로 「동평양화력발전소」 종업원들의 생산활동을 소개(중방)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특장청년탄광 등, '새해 공동사설 제시과업 관철' 쉼기모임 진행
-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닭고기와 달걀생산계획을 수행'한 「9월 27일닭공장」 일꾼-종업원들에게 보내는 김정일의 「감사」 전달모임 진행
- 김일성의 「사리원트랙터부속품공장」 현지도 30돌 기념보고회 진행

■ 1.14(화)

- 지난해 김정일이 "79일 동안 전국 각지 공장-기업소등 207개(120개 軍부대 포함) 단위들에 대한 현지도를 하였다"고 보도(중방)
- 삼신탄광에서의 중앙방송 기자 녹음보도, '대담한 공격전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 나간다'(중방)

■ 1.15(수)

- 평양기초식품공장 등 각지 공장-기업소-농장 근로자들, '새해 공동사설 제시과업 관철' 쫓기모임 소식 보도(중방)

■ 1.16(목)

- 김책공대 연구사 이춘화 등 과학기술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일꾼-학생들에 대한 수훈식 진행(청년동맹회관)

■ 1.18(토)

- 김정일 위원장, 평안남도 토지정리 사업 현지지도 보도(중·평방 등)
- 김일성의 봉산군 은정협동농장(黃北 소재) 현지지도 4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
- 대성은복봉사소(상업봉사: 전자제품) 조업식 진행

■ 1.22(수)

- 함남소재 과학원 함흥분원, 김정일이 보낸 '현대적 과학연구설비' 전달모임 진행
- 평남 온천군 청년전위들, '농업생산에서 선군시대 청년동맹의 전투적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기 위한' 쫓기모임 진행
- '토지정리사업에서 이룩된 천지개벽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의 결실'(중방)
- 제2차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분과」 참가 남측대표단, 평양 도착

■ 1.23(목)

- 김정일이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자동화 본보기단위'로 조성할 방침을 제시('73.1.24.)한 3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

■ 1.24(금)

- 「농근맹」중앙위 제44차 전원회의 개최(평양)
- 「큰물피해대책위원회」 대변인, KCNA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全國 開放'을 조건으로 한 식량지원 企圖"를 비난

■ 1.25(토)

-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분과」 제2차 회의(1.22.-1.25, 평양) 및 '합의서' 채택 사실, 同 남측대표단의 평양 출발사실 등 보도(중방 등)

■ 1.27(월)

- 「전국 농업부분일꾼회의」진행(1.26.-27, 인민문화궁전)

■ 1.28(화)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1.15.자), 국토관리사업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창성군(평북)·성간군(자강도)·운곡지구 단위들에 대해 「국토환경 보호모범군」칭호 수여사실 보도(중방)

■ 1.29(수)

- 「은율장공장」에 대한 ‘3대혁명붉은기’ 수여식 진행

■ 1.31(금)

-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여한 ‘6월4일차량공장’·‘선교편지공장’ 등 6개 단위 일꾼-근로자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 2.1(토)

- 정부체신대표단(단장 : 체신상 이금범), 태국 방문 후 평양 도착

■ 2.3(월)

- 입업성대표단(단장 : 입업상 이상무), 러시아 원동지역 방문차 평양 출발

■ 2.4(화)

- ‘인간사랑의 고상한 미풍’을 발휘한 평남 소아병원 및 과학원 집적회로 시험공장 등 7개 단위 일꾼들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 2.5(수)

- 인민무력부, 김일성 제시 ‘일당백 구호’ 4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4.25, 문화회관)
- 김책공대 일꾼들과 과학자들, 김정일이 보내준 「감사」 전달모임 진행(중앙TV)

■ 2.6(목)

-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인재 양성사업에 기여한 지식인들에 대한 「학위학직」 수여식 진행(만수대의사당)

■ 2.8(토)

- ‘금진강을 정복한 결사관철의 투사들’ 題下로 「금진강청년발전소」 청년돌격대원들의 활약상을 소개(중방)
- 인도네시아 대통령특사 「나나수 프레스나」(「메가와티」 대통령 정치고문), 평양 도착

■ 2.9(일)

- 김정일이 보낸 ‘철길기계설비’(검사차 : 소백수호, 자갈정리차 : 가림천 2호, 철길다짐차 : 가림천1호 등) 전달모임 진행
- 김정일이 지난 5년간 “27개 단위의 농촌 현지도 및 22만 6천여정보의 토지정리를 실시하도록 영도하였다”고 보도(중방)
- 원군사업과 혁명사업 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평양시-평남 「청년동맹」 위원회 등 9개 단위 일꾼-근로자들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 2.10(일)

- ‘불멸의 업적 전하는 열두삼천리별’ 제하로 토지정리사업 업적을 칭송(평방)
- 김정일이 제시한 ‘철도중시사상’에 대한 「철도운수부문 연구토론회」 진행(철도성회관)
- 단상, ‘야전식’ 제하로 김정일은 지난 한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79일 동안 207개(군부대 120개) 단위에 대해 현지지도로 하였다”고 칭송
- 평양시대표단(단장 : 인민위원장 양만길), 러시아 방문차 평양 출발

■ 2.11(화)

- 김용삼(철도상)의 연속실담, ‘광활한 대륙에 새겨진 불멸의 자욱(1회)(평방)
-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제4차회의 참가 북측대표단(단장 : 국가계획위 제1부위원장 박창연) 평양 출발
- 인도네시아 대통령특사와 그 일행, 평양 출발

■ 2.12(수)

- 김정일 위원장, 주북 러시아 대사(「안드레이 쟈나지예비치 까를보부」) 초청 연회 참석

■ 2.13(목)

- 김용삼(철도상)의 실담(제4회), ‘광활한 대륙에 새겨진 불멸의 자욱’(평방)

■ 2.14(금)

- 낙원기계연합기업소(평북 소재)에 「국가표창」 수여식 진행
- 「금강산시범육로관광(2.14~16)」 및 ‘기념모임’(금강산문화회관) 진행 사실 보도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진행(2.11~14, 서울) 및 ‘공동보도문’ 발표사실 보도(평양)
- 몽골친선대표단(단장 : 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 「기찌레마」), 평양 도착

■ 2.15(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2.10자), 평양화력연합기업소 열생산지장 외 17개 단위에 「2중3대혁명붉은기」와 평양전화국 4분국 외 102개 단위에 「3대혁명붉은기」 등 수여(중방)
- 평양시대표단(단장 : 인민위 위원장 양만길), 러시아 방문 후 평양 도착

■ 2.17(월)

- 입업성대표단(단장: 입업상 이상무), 러시아 방문후 평양 도착

■ 2.18(화)

- 백남순, 제13차 「비동맹운동 외무장관회의」 참석차 평양 출발

■ 2.20(목)

- 평양영화비닐신발공장 및 벽동군 양정사업소 및 신기군 신국저수지 등, 김일성 및 김정일의 혁명사적표식비 준공식 각각 진행 보도(중방)
- 원산철공생산협동조합 및 함흥제2교원대학 및 친내군 사업관리소 등에 각각 「2중3대혁명붉은기」·「3대혁명붉은기」 수여 보도(중방)

■ 2.21(금)

- ‘援軍 및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재정성·의학과 학원 등 공장 및 기업소의 일꾼·근로자들에게 김정일의 「감사」전달사실 보도(중방)
- 김일성 노작 「농촌에서 사상혁명·기술혁명·문화혁명을 힘있게 벌일 데 대하여」발표(73.2.21) 30주년 즈음 “지난 5년동안 김정일의 영도 속에 22만 6천여정보의 토지정리 및 6천 120여정보의 새 땅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자랑(중방)
- 개성공업지구 건설 관련 남측관계자들(현대아산 정몽헌회장 등 30여명), 서해선 임시도로(문산-개성) 첫 시험통과 및 개성 현지답사

■ 2.24(월)

- 「의학과학원 위생연구소」 과학자들, 새로운 '먹는 물 소독기구' 개발 성과 보도(중앙TV)
- 입업성대표단(단장: 전명국 입업성 부상), 러시아 원동지역 방문차 평양 출발

■ 2.25(화)

- 당 중앙위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내각, 2002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한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 202개 공장·기업소 「공동순회 우승기」·「표창장」 등 수여 결정 보도(중방)
- 평양시 창광거리에 「조선우표전시장」(600여㎡,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4,300여점의 우표 등 전시예정) 건설 진행 보도(평방)
- 김영남, 제13차 비동맹운동 정상회담에 참가한 쿠바·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총국장 등 各國 대표들과의 회담 및 접촉(2.24-25, 쿠알라룸푸르)

■ 2.26(수)

- 각지 농촌에서 '봄 밀·보리심기' 노력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중방)
- 「2월26일공장」(자강도 소재) 창립(53.2.26) 5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
- 평안북도 친선대표단(단장: 인민위원장 박경삼), 중국 요녕성 방문차 신의주 출발

■ 2.27(목)

- “미국정부가 WFP를 통해 올해 10만톤의 대북 식량을 제공키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평방)

■ 3.1(토)

- 「조총련」재정일꾼 대표단(단장: 중앙상임위 위원장 최병조), 평양 도착

■ 3.2(일)

- 전국 각지의 일꾼 - 근로자 - 청소년 학생들, '植樹節' 57돌 즈음 '나무심기 꺾기모임' 진행(대각청년 언제지구 등)
- '植樹節' 57돌 기념 노동신문 사설, '온 나라에 푸른 숲 우거지게 하자' 발표(중방)
- '조국의 푸른 숲과 더불어 빛나는 불멸의 업적' 題下로 '植樹節'의 意味와 김정일의 식수사업 업적을 칭송(평방)
- 黨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내각위원회·성 책임일꾼들, 대각청년언제와 토지정리된 평안남도내 운곡지구 '내남협동농장' 등 여러 농장등 참관

- 「軍 · 육 · 해 · 공군부대들, ‘植樹節’ 즈음 「전군중적 운동으로 봄철 나무 심기를 힘있게 벌일데」 대한 ‘김정일의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궤기모임’을 각각 진행
- 「농근맹」근로자들, ‘봄철나무심기를 힘있게 벌이기 위한’ 궤기모임 개최(강서구역 청산리)
- 「여맹」원들, ‘봄철나무심기를 힘있게 벌이기 위한’ 궤기모임 개최(금수산 기념궁전 수목원)
- 조선인민군 「김금선소속부대」장병들, ‘나무심기’ 진행(김일성동상 주변)

■ 3.4(화)

- 유엔아동기금(UNICEF)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사무소 소장 「메호르 칸」 일행, 평양 도착

■ 3.5(수)

- 김일성의 「토지개혁법령」 발표 57돌 즈음 ‘사회주의국가의 토지답개 전면시켜 주시려고’ · ‘선군시대에 펼쳐지는 사회주의 仙境’ 題下 등으로 보도(평방 등)
- 斷想, ‘참모습’ 題下로 토지정리 성과를 擧揚(중방)
- 박영훈(평남 농촌경리위 위원장)의 實談. ‘평남도 토지정리사업을 지도 하시던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중방)
- 황북 서흥군 범안리 一帶에 “문화위생시설이 갖춰진 농촌살림집들이 건설 되었다”고 보도(중방)
- 최근 몇 해동안 전국적으로 “8만 6천 9백여 世代의 농촌살림집들이 새로 건설되었다”고 보도(중방)
- 농업과학원 공예작물연구소 과학자들, 최근 “신품종 기름작물 육종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도(중방)

■ 3.6(목)

- 김정일의 노작 「치산치수산업을 힘있게 벌여 조국산천을 노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꾸리자」 발표 1돌 즈음 김학권(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과 기자의 對談 보도(중방)

■ 3.8(토)

- 백두산지구 혁명전 · 사적지 건설을 적극 지원한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 7개 단위 일꾼 - 근로자들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사실 보도(중방)
- ‘EU가 지난 2002년말 WFP를 통해 제공하기로 한 7만여톤의 대북 지원 식량’을 실은 첫 배, 남포항 도착

■ 3.9(일)

- 삼지연군 배개봉기술에 '각종 체육훈련관·과외체육학교·교사·식당·숙소 등 현대적 시설을 갖춘 체육촌' 건설 보도(평방)
- 「아-태평화위」, 「현대그룹과의 협력사업」 관련 制限 발표

■ 3.10(월)

- 「첫 농민동맹을 결성하시어」 題下로 김일성의 「농민동맹」 결성 75돌을 기념(평방)
- 「6월1일청년전기기구공장」(城南道 소재) 창립(53.3.10) 50돌 기념보고회 진행
- 임업성대표단(단장: 부상 정명국), 러시아 원동지역 방문 후 평양 도착

■ 3.11(화)

- 「현대아산」 정몽헌회장 일행, 「아-태」측과의 경제협력 현안 협의차 평양 도착
- UN아동기금 동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소장 「메호르 칸」 일행, 평양 출발

■ 3.12(수)

- 평양컴퓨터기술대학 일꾼과 교원들, 「黨의 인재중시사상」을 받들어 “정보 기술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고 보도(중방)
- 제1차 「전국나노과학기술발표회」 진행(3.11-12, 평양)
-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平南道 소재) 탄부-일꾼들에게 보내는 黨중앙위 「감사문」 전달모임 진행
- 「남북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3.10-12, 개성) 진행 및 「합의서」 채택사실 보도(중·평방 등)
- 「현대아산」(정몽헌 회장 등), 「亞-태평화위」(부위원장 이종혁)와 실무협의 진행(평양)

■ 3.13.(목)

- 「개천 - 태성호물길공사」에서 偉勳을 세운 일꾼과 건설자들에 대한 표창식 진행(인민문화궁전)
-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탄부-일꾼들에 보내는 당 중앙위의 「감사」 전달 모임진행
- 「현대아산」 정몽헌회장 일행, 평양 출발(중·평방)

■ 3.14.(금)

- 김책공업대학 및 과학원 지질학연구소 등 7개 단위 일꾼 - 근로자들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 조선화구공장 및 평원수출피복공장 등에 당 중앙위-최고인민회의 상임위-내각 공동명의의 「순회우승기」 전달모임 각각 개최 보도(중앙TV)
- 「애성장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건설 - 지원자들의 충성 결의모임 진행

■ 3.15(토)

- 援軍美風을 높이 발양한 옥류관 및 평양산원 등 8개 단위 일꾼-근로자들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소식 보도(중방)

■ 3.17(월)

- 「2.8적동청년탄광」 탄부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위의 「감사문」 전달 모임 진행
- 「문수원」(평양시 소재, 종합적 위생편의봉사기지) 창립 2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
- 금진장 홍봉발전소 언제건설장에 김정일이 보낸 輪轉機材 전달모임 진행
- 記者 대담, '민족의 화해와 북남관계 발전의 상징' 題下로 현대와 「亞太」 사이의 협력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평방)

■ 3.18(화)

- 평안남도 지역의 개천 - 태성호 지선물길(180여km) 공사 완공 보도(중방)
- 유엔 사무총장 특사 「모리스 스트롱」 일행, 평양 도착
- 駐北 러대사 「안드레이 까를로브」, 「북-러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54주년 즈음 이광근·조석용 등 초청연회 개최(자국대사관)

■ 3.19(수)

-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모든 사업을 참신하게 해 나갈데 대한' 중앙연구 토론회 진행(인민문화궁전)
- 창광수출품피복공장 창립 2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

■ 3.20(목)

- 2002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내각 대외봉사국 제1승용차 사업소 등에 당 중앙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 내각 공동명의 「순회우승기」 수여모임진행사실 보도(중앙TV)
- 조총련 일꾼대표단(단장: 국장 배진구), 평양 도착

■ 3.21(금)

- 김일성의 「세금제도 폐지법령 발표」(74.3.21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 29돌 즈음 '세기적 숙망을 풀어주신 위대한 아버지' 題下로 칭송(평방)
- 김영남, 유엔 사무총장특사 「모리스 스트롱」 일행과 담화(만수대의사당)

■ 3.22(토)

-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우리당국의 “데프콘-2 조치를 구실로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 제2차회의 및 해운협력 제3차 접촉 거부” 관련 談話 발표
- 철도성 대표단(단장: 부상 김용강), 제2차 「조-러철도공동위」 제2차회의 참가자 평양 출발
- 폴란드 「오빠뚜브군 친선대표단」(단장: 同지부 위원장 겸 「폴-조친선협회」 위원장 「스따니스와프 도베크」), 평양 도착
- 유엔 사무총장특사 「모리스 스트롱」 일행, 평양 출발

■ 3.23(일)

- 김일성의 노작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발표 20돌 기념 보도(평방)

■ 3.24(월)

- 「전국경공업부문 일꾼회의」 진행(3.23-24, 인민문화궁전)
- 「농근맹」대표단(단장: 부위원장 주상전),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

■ 3.25(화)

- '선군이 안아온 사회주의 仙境' 題下로 대관개운하 「개천-태성호 물길 공사」를 소개(평방)
- 서평양기관차대 일꾼과 수송전사들, '350만km 무사고 주행'을 통해 63,000여톤의 화물을 수송 보도(중방)
- 러시아 보건일꾼작맹대표단(단장: 부위원장 「젠나지 웨르코프」), 평양 도착

■ 3.26(수)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회의」 진행(만수대의사당)

■ 3.27(목)

- 녹음보도, '현대적인 전자도서관과 체육관이 일떠선다' 題下로 김정일의 지시로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전자도서관(연 건축면적 1만 7천㎡, 5층 건물)과 체육관(연 건축면적 1만4천100㎡)이 건설중임을 보도(중방)
- 「10.5일자동화기구공장」 창립 5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인민문화강진)
- 정부 내각, 「공보」를 통하여 10년 만기(2003.5.1-2013.4) 3종류(500·1,000·5,000원권)의 “인민생활 公債” 발행(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대회의 채택 법령의거) 발표
- 「청년동맹」 대표단(단장: 비서 김영철), 쿠바-브라질 방문후 평양 도착

■ 3.28(금)

- 斷想, '물에 대한 생각' 題下로 「개천-태성호물길공사」 업적을 소개(중방)
- 記者의 녹음보도, '원산청년발전소 건설장에 위대한 공격전의 기상 나래 친다'(중방)
- 평양철도국 「신성천철도 청년1호·2호발전소」 조업식 진행
- 김창원(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교수)의 해설, '경제에서 자립은 주체사상의 지도원칙'(14회)(중방)
- 「北-南-해외학자 통일회의」 참가 남측대표단, 김일성종합대학·학생소년궁전·묘향산지구 등 참관 보도(중·평방)

■ 3.29(토)

-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한 「농근맹」 일꾼-근로자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 철도운수부문 일꾼-노동계급,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개시이래 20여년간 “2억 9천 833만여톤(평양철도국, 1억 2천 7백만 3천여톤·청진철도국 산하 260만톤 등) 화물 견인 초과성과” 보도(중방)
- 기상수문국 대표단(단장: 부국장 고상복), 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기후토론회」 참가차 평양 출발

■ 3.30(일)

- 김정일의 '원화협동농장(平南道 평원군 소재) 명예농장원 추대' 20주년 기념 보고회 진행
- 「농근맹」 대표단(단장: 부위원장 주상진), 중국방문후 평양 도착

■ 4.1(화)

- 「전국철도일꾼대회」 개막식 진행(인민문화궁전)
- 러시아 보건일꾼직맹대표단(단장: 부위원장 「젠나지 세르바코프」), 평양 출발(4.1)

■ 4.2(수)

- 「전국철도일꾼대회」, “철도운수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정보화 할 데 대한 토론” 전개 후 폐막
- 평양체육관 창립 30주년 기념보고회

■ 4.3(목)

- 「조총련」 일꾼대표단(단장: 중앙상임위 국장 배진구), 평양 출발

■ 4.4(금)

- 과학원 함흥분원 분석화학연구소에 대한 「3대혁명붉은기」 수여식 진행

■ 4.7(월)

- ‘녹음 보도: 라남의 봉화 높이 대상설비, 생산을 다그친다’(중방)
- 과학기술교류대표단(단장: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부위원장 장낙천), 중국방문차 평양 출발

■ 4.8(화)

- 평양고무공장 등 9개 단위 일꾼-근로자들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소식 보도(중방)
- ‘용납못할 반민족적 행위’ 題下로 우리 국회의 북핵문제 관련 ‘對北 제재 검토 당국권고’ 발표를 비난(평방)

■ 4.9(수)

- 전국 각 도·시·군 소재지 공장·기업소·농장 등,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10돌 경축모임 진행

■ 4.10(목)

- 농업근로자들, ‘태양절’ 기념 ‘노래모임’ 진행(만경대혁명사적관 앞마당)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4.10字), 조선중앙방송국 동력직장 외 21개 단위에 「2중3대혁명붉은기」 및 금옥탄광 1개 외 107개 단위에 「3대혁명 붉은기」 수여 발표

- 러시아 원동대표단 및 일본싼티주식회사대표단 · 중국화룡시진보목제품 유한회사대표단 등, 제5차 「김일성화축전」 참가차 평양 도착

■ 4.11(금)

- ‘라선저수지’(咸北道 라선시 소재) 준공식 진행
- 철도성대표단(단장: 부상 김용강), 「北-러 철도공동위원회 제2차회의」 참가후 평양 도착

■ 4.14(월)

- 김정일위원장, 함남 소재 금야강발전소 건설장과 금야군 원료기지농장 현지지도 및 안불사 시찰 보도(중·평방 및 TV)
- 평양건설기계화사업소 및 평양의학대학 강좌장 정경해 등 ‘援軍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7개공장-기업소의 일꾼-근로자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 「청년건설성과전시장」 개막식 진행(청년중앙회관)
-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에 「김일성·김정일혁명사적비」 건립 (길이: 11.10m × 높이: 3.8m, 무게 246t) 준공식 진행
- 駐北 경제 및 무역참사단 및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꾼들, ‘태양절’ 즈음 제5차 김일성화축전장 참관

■ 4.15(화)

- 김정일위원장, 함흥영예군인 수지일용품공장 현지지도(중방)
- ‘인류의 심장 속에 새겨진 절세위인의 거룩한 생’ 題下로 生前 김일성의 전국 각지 현지지도 단위가 “2만 6백여개에 이른다고 보도(평방)
-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한 일꾼들에게 태양절 즈음 「김일성 훈장」(박명선 등 32명) 및 「김일성상」(김유식 등 2명)등을 수여 보도(중방)

■ 4.16(수)

- 수풍발전소 전기직장 등에 「2중 3대혁명붉은기」, 평북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에 「3대혁명붉은기」 등 수여 보도(중방)

■ 4.17(목)

- 김정일위원장 함흥씨리카트벽돌공장 · 5.20일대성공장 등 함흥 시내 공장-기업소 현지지도 사실 보도(중방)
- 육해운성대표단(단장: 김영일 육해운상), 쿠바 방문차 평양 출발

■4.18(금)

- 김정일의 함흥영예군수지일용품공장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선물'(4.15 현지 지도시, 컬러 TV 등) 전달모임 진행 사실보도(중방)
- 구성시 남산협동농장 및 안악군 룡산·월지협동농장 등,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적표식비」 건립 준공식 진행 사실보도(중방)
- 김일성혁명사적표식비(6월7일공장·함흥시멘트공장·북청 수지일용품생산협동조합·홍원군 우관진수산협동조합·안주시 연풍중학교)·김정일혁명사적표식비(신의주 기초식품공장·영광군 중상협동농장), 각각 건립 사실 보도(중방)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위, 최근 김정일이 「총련」에 전달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2억 3,960만円)에 대한 '감사문'(4.16자) 전달 보도(중방)

■4.19(토)

- 백두산들쭉가공공장 등에 「2중3대혁명붉은기」를, 부령발전소 등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 보도(중방)
-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남측 수석대표에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의 4.27-29 평양 개최 제의” 電通文 전달

■4.20(일)

- 전국 각지에서 새 도로 건설 및 강하천 정리사업, 도로표식물 설치 등 「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 진행소식 보도(중방)
- 과학기술교류대표단(단장: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부위원장 장낙천), 중국방문 후 평양 도착

■4.21(월)

- 당 중앙위-중앙군사위, 정권 창건 55주년 즈음 '당 중앙위 구호' 발표(4.9자) 사실 보도(중방)

■4.22(화)

-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요소비료 6만여t 제공사실 보도(중방)

■4.23(수)

- '김정일의 선군혁명노선'에 대한 청년동맹-농근맹 일꾼들의 연구 토론회(4.21-23) 각각 진행
- 「기계공장건설설계사업소」 창립(63.4.13) 4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
- 철도성 종업원들 쫓기모임 진행(철도성회관)
- 조명록, 北京 출발 및 평양 도착

■4.24(목)

- 성강군(자강도 소재)에 「국토환경보호 모범군 칭호」 수여식 진행(실 보도(중방))
- 「수학연구소」(소장: 정재부)와 「석탄채굴연구소」(소장: 김철수)에 대한 '김일성훈장' 수여식 각각 진행
- 주북 각국 경제 및 무역참사단, 군 창건 71돌 즈음 평천혁명사적지 참관

■4.26(토)

- 함경남도 근로자들, '김정일의 현지말씀(03.4.8-15)' 관철을 위한 쉼기모임 진행
- 외무성대표단(단장: 최수현), 영국방문차 평양 출발

■4.27(일)

- 김정일의 '원산청년발전소' 건설장에 보내는 건설기계·운전기재들 전달 모임 진행(원산시 개선광장)
- 금야강발전소(咸南道 소재) 건설자-돌격대원들, '김정일의 현지말씀(03.4.8)을 높이 받들고 금야강발전소 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쉼기모임 진행
- 「黨 중앙위·최고인민회의 상임위·내각」, 지난 해 당의 축산정책 관철에서 모범을 모인 만경대구역 등 45개 시·군·구역에 「공동순회우승기」 수여 결정(중방)

■4.28(월)

- 김정일위원장, 제318군부대- 同부대 新設 발전소 시찰 및 同부대기동선동대 공연- 제287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관람

■4.29(화)

- 김정일의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황남 일대 농장별 등 1만 여km에 灌溉水가 흐르고 있다"고 보도(중·평방)

■4.30(수)

-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혁명사적지 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고려미술 창작자·대흥단혁명전적지관리소 등 일꾼-근로자들에게 김정일「감사」전달 보도(중방)
- 노동신문 사설, '필승의 신념과 낙관을 가지고 당중앙위원회 구호 관철에 한결같이 떨쳐 나서자'(중방)
- 「검덕광산」 노동자-기술자-일꾼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위의 「감사문」전달 모임 및 새로 개발된 '8.29일 분광산' 조업식 진행

■5.1(목)

- 평안북도내 '백마-철산물길건설공사'(※1,290여개의 각종구조물 및 발전소 등 건설을 위한 대자연 개조사업) 추진소식 보도(중방)
- '5.1절' 113돌 기념 중앙보고회 진행(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 홍성남과 전병호 등 당·국가 지도간부들, 검덕광산·금성트랙터공장 등 전국 각지의 공장-기업소 방문
- 보도 인용, 미국 경제가 사스(SARS)로 인해 "항공여객 1/3감소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중방)

■5.2(금)

- '5.1절' 관련 북창지구연합기업소 등에서 다채로운 '체육경기' 진행소식 보도(중방)

■5.4(일)

-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창립 30돌 기념보고회 진행
- 평남 안주시 송악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이기 위한' 쫄기모임 진행
- 함남 금야군 등 여러 단위 근로자들, 김정일의 '현지말씀'(4.8 및 4.11자) 관철 쫄기모임 진행사실 보도(중방)
- 남포시 와우도구역에 '군민거리' 건설 보도(중방)

■5.5(월)

-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題下로 김정일의 노작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발표 12돌을 기념(중방)

■5.6(화)

- 대홍청년광산 노동계급-일꾼 및 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 과학-기술자들 등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사실 보도(중방)
-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과학기술 성과' 題下로 과학원 함흥분원 과학자-기술자들의 "새로운 기능성 비날론 섬유개발" 등 각 부문의 연구 개발 성과를 선전(중방)

■5.7(수)

-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일성의 현지도 10돌 기념보고회 진행
- 함남 도시설계사업소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진행
- 김정일의 '청류관' 현지도 20돌 기념보고회 진행

■5.8(목)

-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애국적 열의를 갖고 수백억원의 '인민생활공체' 예약 및 구매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평방 등)
- 북한 외부성대표단(단장: 최수현 부상), 영국방문 후 평양 도착

■5.9(금)

-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일꾼과 근로자들에 대한 김정일의 「감사」 전달사실 보도(중방)
- 노동신문 사설, '당 중앙위원회 구호를 높이 들고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자'(중방)
- 외무성 대표단(단장 : 부상 최수현), 「조선-유럽동맹관계에 관한 토론회」(5.2, 런던,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참가 보도(중방)

■5.10(토)

- 전기석탄공업성에서 전국적인 "전력계통 지휘체계의 현대화 실현으로 컴퓨터 전력계통운영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중방)

■5.12(월)

- 노동신문 사설, '당 중앙위원회 구호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선군시대의 영웅이 되자'(중방)

■5.13(화)

- 김정일위원장, 새로 발굴된 구슬폭포·비단폭포·육담 시찰
- 평안북도내 중공업공장들, "당 중앙위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일일 생산실적이 前年 同期 대비 1.3배로 증가" 보도(중방)
- 전국각지 협동농장들과 경공업-건설부문 공장-기업소들, 당 중앙위 구호관철을 위한 쫓기모임 진행 보도(중방)

■5.15(목)

- 김정일의 노작 「모두 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발표 15돌 기념 보도(중방)
- 평원군, '개천-태성호 물길' 평남 支線 通水式 진행

■5.16(금)

- 김정일위원장,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841군부대 및 同부대 군인들이 건설한 「승리발전소」 등 시찰
- 스위스 외무상 「미셸린 칼미 레이」일행, 평양 도착

■5.17(토)

- 신의주시, 김정일의 평안북도 현지도 1돌 기념보고회 개최

■5.19(월)

- '염화비닐신발공장, 김일성의 현지도('73.5.20) 30돌 기념보고회 진행
- 전기석탄공업성 전력공업총국, 스위스 아베베그룹과 초고압 송전망 대상 실현과 관련한 「양해문」조인(평양)
- 노문영 실장(의학과학정보센터)의 '사스(SARS)로 인한 각국의 경제적 피해상황' 설명(중앙 TV)

■5.20(화)

- 平北道에서 올해 '봄철 나무심기 기간'에 13,000여정보의 산에 기름나무림과 아카시아나무림 조성성과 자랑(중방)
- "배추과 작물의 종합적 해충관리 개발" 관련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 개선에 관한 北-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 「양해각서」 조인 보도(중방)
- 최근 캐나다 정부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250만 달러분의 對北 식량제공 결정사실 보도(중방)
- 스위스연방 외무상(「미셸린 깔미 레이」) 일행, 평양 출발
- 노문영(의학과학원 의학과학정보센터 실장)과 記者의 對談, 'SARS로 인한 각국의 피해상황 및 대책사업에 대한 설명'(중앙TV)

■5.21(수)

- 강계시내에 "천m 구간의 서산거리 건설" 보도(중방)
- 혁명사적지 관리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과학원 컴퓨터과학연구소 등 3개 단위 일꾼들에게 김정일의 「감사」전달사실 보도(중방)

■5.22(목)

- 김일성 및 김정일의 평양제사공장(※생산공장) 현지도 40돌 기념보고회 진행
- '체신의 현대화'를 위해 「희천공업대학」을 「희천체신대학」(기존학과를 전기통신공학·무선공학 등 학과로 개편)으로 개칭 보도(중방)

■5.23(금)

- 평남 연풍호소년단야영소 창립 20돌 기념보고회 진행
- 지방원료 원천과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한 맹산장공장 일꾼과 종업원들에 김정일의 「감사」전달 보도(중방)
- '발전소 건설자들에게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어'(중방)

■5.24(토)

-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진행
- 강계포도술공장에 「2중3대혁명붉은기」, 강계편직공장 등에 「3대혁명붉은기」를 각각 수여 보도(중방)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5.19-23, 평양)에서의 ‘7개항 합의문’ 내용 보도(중방)

■5.25(일)

- 평양시내 기관-기업소 일꾼과 근로자들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5.26(월)

- 이란-조선친선주간 개막식 및 북한도서-사진전시 수공예품전람회(5.20, 테헤란) 개막소식 등 보도(평방)

■5.27(화)

- 라선시에 현대적인 예술극장(1만6천여㎡, 1,500여석 규모의 관람석) 건설 진행 보도(중·평방)

■5.29(목)

- 「亞-太평화위」 대변인, SARS로 인해 임시중단됐던 ‘금강산관광’을 6월초에 재개하겠다는 「담화」 발표

■5.30(금)

-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 및 혁명사적지 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경공업성 일꾼-종업원 등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사실 보도(중방)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열생산지장에 「2중3대혁명붉은기」 및 라남탄광 기계연합소 공업시험소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사실 보도(중방)
- 현대적 설비를 갖춘 평양시내 청량음료 생산기지인 「강서약수가공공장」이 “곧 준공된다”고 보도(평방)
- 양강도내에서의 ‘감자심기 종료’ 보도(평방)

■5.31(토)

- 「청단기초식품공장」(※간장, 된장 등 생산) 조업식 진행
- ‘이성을 잃은 자들의 위험한 대조선 압살채동’ 題下로 한·미·일의 對北 공동조치 강구움직임을 비난(평방)

■6.2(월)

- 김정일의 노작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 발표 13돌 기념 보도(중방)

■6.4(수)

- 김정일위원장,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산하 '농장'과 '염소종축장' 현지도

■6.5(목)

- 김일성의 노작 「전후 경제복구건설 방향에 대하여」 발표(53.6.5) 50돌 즈음 반향 보도(중방)

■6.6(금)

- 금야군 10.13일 원료기지농장과 생산임산사업소 진출 제대군인들에 대한 환송식 진행(평양역)

■6.7(토)

- 김정일의 함경남도 현지도 1돌 기념보고회 진행(함흥대극장)
- 노동신문 글, '우리 당의 강성대국 건설구호의 정당성'(평방)

■6.8(일)

- 「黨중앙위 구호」 발표(4.21) 이후 40여일이 지난 현재 “전력·석탄·철강·임업 등 각 부문 혁신으로 공업생산이 평균 1.2배 성장” 보도(중방)
- 외무성 대변인, KCNA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對北 봉쇄강화는 “정세를 더욱 격화시킬 뿐”이라고 비난

■6.9(월)

- 제5차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실무접촉」 진행(6.7-9, 개성) 및 합의서 내용 보도(중·평방)

■6.10(화)

- 김정일위원장, 「라효진양어사업소」 양어장 현지도
- 황북 사리원시 인근에 '연산군민발전소' 건설 보도(평방)
- 평양시 일꾼들과 소비품생산자들, 지난 19년동안 「8.3인민소비품생산투쟁」을 통해 소비품생산액을 16.5배로 증가시켰다고 보도(중방)
-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에 대한 「3중 3대혁명붉은기」 수여식 진행

■6.11(수)

- 김정일위원장, '장수산 유원지(황해남도 소재) 현지지도' 보도(중방)
- 현대적인 변전소를 건설한 평양시 송배전부 노동자-일꾼들에 대한 당 중앙위 「감사문」 전달모임 진행

■6.12(목)

- 모란봉구역 및 평천구역 등, 평양시민들이 「공채」 구매에 모범을 보이는 등 공채사업의 진행소식 보도(중방)

■6.13(금)

- 김정일위원장, 신축된 황북 봉산군 은정리소재 염소종축장 현지지도 및 同농장원들의 봉산탈춤 관람

■6.14(토)

- '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 제시된 전투적인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중방)
- 「현대-아·태평화위위」간 실무접촉(6.10-13, 금강산) 및 공동보도문(금강산 관광 재개 및 개성공업지구 건설착공식 등) 내용을 보도(중방)
- 「남북철도-도로연결행사」 동-서해선 현장에서 각각 진행사실 및 「남북 철도-도로연결분과」 북측단장의 연설내용 각각 보도(중·평방)

■6.15(일)

- '인민생활공채 구매사업에서 발현되는 애국열의'(중방)
- 도-시-군당 책임 일꾼들, 봉산군 은정리 염소종축장 참관

■6.16(월)

- 김정일의 「대동강택주공장」 현지지도 1돌 기념보고회 진행
- 평양시내 당원-근로자들, 특히 “모란봉구역과 평천구역의 일꾼들이 인민 생활 公債 매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보도(중방)

■6.17(화)

- 김정일위원장, 황남 신원군 계남목장 현지지도(중방)

■6.18(수)

- 김정일위원장,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에서 건설한 발전소와 직속 중대 시찰
- 재령군(황남도) 근로자들, 김정일이 장수산유원지 현지지도(03.6.9) 당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꺾기모임 진행

■6.19(목)

- 평양기포부대공장 기포부대직장외에 22개 단위에 「2중3대혁명붉은기」 및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전기보수직장외에 111개단위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 보도(중방)
- 모범적인 학교들인 매봉소학교(희천시 소재)에 「3중영예붉은기」 및 해운소학교(해주시 소재)의 3개 단위에 「2중영예붉은기」와 평양 당진소학교외 4개 단위에 「영예의 붉은기」 수여 보도(중방)
-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 주시어’(중방)

■6.20(금)

- 통나무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임업성과 자강도 및 함남도 임업연합기업소 등 일꾼-근로자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평방)

■6.21(토)

- 평양영예군인자동차부속품공장,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에 의해 팽창흑연에 의한 “기관합착관” 생산 보도(평방)

■6.22(일)

- 남강(平南道 양덕군 거창령→黃北道 승호구역 리천리의 200.5km)에 수백m의 현대적인 다목적 ‘다리’ 건설 보도(평방)
-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의 주체과학기술’ 題下로 반도체·유전공학·정보산업 등 “일부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 수준 담보 마련” 보도(중방)

■6.23(월)

- 자강도 위원군내 당원-근로자들, “公債 구매사업에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중방)
- 자강도 위원군내 당원과 노동자들, 인민생활공채 구매사업에 적극 참가하는 “애국적 소행을 발양하고 있다”고 보도(중방)
- 노동신문 논평, ‘강력한 보복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보도(중방)
 - 최근 일본의 ‘만경봉호-92호’ 입항금지 등 대북 봉쇄-경제체제 움직임 등과 관련하여 “자주권 침해시 무자비한 보복타격조치로 대응의사” 표명

■6.24(화)

- 계남목장 건설에 위훈을 세운 黃南道 당위원회 등 道급 기관들과 공장 및 계남목장 일꾼-근로자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모임 진행

■6.26(목)

- 黄南道 근로자들, 김정일의 현지말씀('03.6.17)을 철저히 관찰하기 위한 월기 모임 진행(계남복장)
- 「2중3대혁명붉은기」(원산유리병공장·신의주신발공장 품질감독소) 및 「3대혁명붉은기」(대동강자동차수리소·함흥청년열차승무대·개성9월14일피복공장·동해수산연구소 청진분소·신천여관 등) 각각 수여 보도(중방)
- 정부대표단(단장: 대사 허종), 제10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가 후 평양 도착

■6.28(토)

- 혁명입무 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인민보안부문 일꾼들과 종업원들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6.29(일)

- ‘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찰하자’(중방)
- 애국적 소행을 발양한 수매양정성-체신성-무역은행-벽성군지구관개관리소 일꾼 및 근로자들에세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금강산관광지구개발규정」(5.12자, 「결정」 제106호, 24조로 구성) 및 「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5.12자, 「결정」 제107호, 34조로 구성) 채택 보도(평방)
- 최고인민회의상임위, 「개성공업지구개발규정」(4.24자, 「결정」 제102호, 19조로 구성) 및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4.24자, 「결정」 제103호, 32조로 구성) 채택 보도(평방)

■6.30(월)

- 「개성공업지구 착공식」 진행 보도(평방)
- 노동신문 논평, ‘수습할 수 없는 사태를 빚어낼 수 있다’ 보도(평방)
 - 최근 폐막된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의장성명 채택 등을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시킨 국제적인 대북 압력 강화용”이라 비난
- 경공업대표단(단장: 경공업상 이주오), 러시아 방문차 평양 출발

■7.1(화)

- 「개성공업지구 건설착공식」 취재기자와의 問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 열기를 더욱 북돋아 줄 개성공업지구 건설’(평방)

- 친아버이 사랑으로 남녘 겨레들을 보살펴주시어' 題下로 '84년 여름 남한의 홍수피해 당시 김일성이 "쌀 5만석, 천 50만m, 시멘트 10만톤, 의약품 등 구호물자를 보내주었다"고 선전(평방)

■7.2(수)

- 길주군 봉암리 「농근맹」 경제선동대에 김정일의 「감사·선물」 전달보인 진행
-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 전국 각지 2천여km 도로건설과 7만여동 주택과 공공건물 건설·보수 및 1,600여km의 강하천 정리 등 사업성과 보도(평방)

■7.4(금)

- 사리원담공장 및 수매양정성 자재상사·평양교예학원에 「2중3대혁명붉은기」, 원산에국피복공장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 보도(중방)

■7.6(일)

- 김정일위원장, 강계시의 여러 부문 사업장(강계객주집·홍주청년2호발전소 건설현장·강계기초식품공장·홍주담공장·강계토끼종축장·강계인퐁여관·영웅강계장자산제1중학교) 현지도 및 강계시 전경 부감 보도(중방)

■7.10(목)

- 혁명과업 수행과 사회-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평양오리고기 전문 식당 등 여러 개 단위 일꾼-종업원들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 '세기의 위인: 축산기지에 새겨진 불멸의 노고'(중방)
- 경공업대표단(단장: 경공업상 이주오), 러시아 방문후 평양 도착

■7.11(금)

- 용양광산으로 진출하는 제대군인들에 대한 표창식 진행(4.25문화회관)

■7.14(월)

- 자성군(자강도)에서 節電을 위해 군내 각 가정들에 20w의 '콤팩트' 電球로 교체, 예비전력 확보 및 이용효과 선전(중방)
- 금속기계공업성대표단(단장: 금속기계공업상 전승훈), 러시아 방문차 평양 출발

■7.15(화)

- 중국 정부 특사 「戴秉國」 방북 동정(7.12-15) 보도(중방)
- 김영남 및 백남순 등과 담화, 강석주와 회담, 북한정부 주최 연회 참석, 황북 서흥군 범안협동농장 참관 등

■7.16(수)

- “애국적 소행을 발휘한” 고평군-성간군 등 여러 개 단위 일꾼·근로자들에 김정일의 「감사」전달 보도(중방)
- “인민생활공채 구매사업을 통해 마련된 자금이 주요발전소 건설 및 국가 계획건설사업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보도(중앙TV)
- “최근 중국정부가 디젤油 萬톤을 무상제공키로 결정” 보도(평방)

■7.17(목)

- “인민생활공채 구매사업을 통한 여유자금이 국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돌려지고 있다”고 주장(중방)
- 낙원총국대표단(단장: 총국장 박규홍), 러시아 원동지역 방문후 평양 도착

■7.19(토)

- “인민생활公債 수입금이 평양시 개건 현대화공사에 우선투자됨으로써 평양을 웅장화려하게 꾸미는 사업에 큰 진전이 이룩되고 있다”고 이경학(영광거리 개건현대화공사지휘부 책임부원) 등 인터뷰 보도(중방)
- 황북 신계군에 “수천톤 능력의 고무마 가공기지 건설중” 보도(평방)

■7.20(일)

- 김정일위원장, 함북 어랑천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보도(중·평방)

■7.22(화)

- 노동신문 사설, ‘1950년대의 조국결사수호정신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자’(중방)
- 각급 대의원 선거를 앞둔 남포시내 연강경주전문학교의 한 교원이 다량의 ‘公債’를 구매하는 등 당조직들과 당원-근로자들 속에서 “선거위원회 사업을 잘 도와주고 있다”고 보도(중방)
- “백두산지구를 더 잘 꾸리는데 이바지한” 염주군 연유공급소·평양원에 총국 등 일꾼-종업원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 백두산지구 개건보수사업에 힘쓴 여러 개 단위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평방)

■7.23(수)

-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각지 일꾼-근로자들, 「7월 제품질제고대책월간」에 즈음한 성과 거양 소식 보도(중방)

■7.25(금)

- 「북한 평태평화위-남측 현대아산」, 7.23-25 금강산에서 이종혁(아-태평화위 부위원장)·방정삼(금강산 국제관광총회사 총사장)과 현대아산 정몽헌·김윤규(현대 아산 회장·사장) 사이의 접촉사실 보도(평방)

■7.26(토)

- ‘금성뜨락뜨르공장’ 조업(‘73.7.26.) 30돌 보고회, 이영복(남포시 黨員) 및 김영남(금속기계공업성 1부상)·김공철(공장 黨員, 보고) 등 참가하에 현지에서 진행(중방)
- ‘평양필름현상소’ 창립(‘73.7.26.) 30돌 보고회, 강능수(문화상)·김수웅(소장, 기념보고) 등 참가하에 현지 진행(중방)

■7.28(월)

- 「7월28일요업공장」 창립(‘53.7.28) 50돌 기념보고회, 안춘남(내각수도건설 위원회 당 위원회 비서, 축하문 전달)·김광명(공장 초급당비서, 기념보고) 등 참가하에 현장 진행(중방)
- 김일성의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지도(‘53.7.29) 50돌 기념보고회, 노배권(황북도 黨員)·김병팔(기업소 黨員, 기념보고) 등 참가하에 현장 진행(평방)
-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을 이룩할 겨레의 드팀없는 의지’ 題下로 지난 3년간 남북간 회담 및 교류협력 성과를 총화, 현 정세하에서도 지속적인 화해 협력의 발전적 통일운동 강화 강조(평방)

■7.29(화)

- 백마-철산 물길(水路)공사 등 “혁명과업 수행과 선전선동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평양시여단·교육성 등 일꾼-근로자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중방)
- 황해북도 신계군 미루벌에 수천톤 능력의 ‘고구마가공기지’ 건설 진행 및 ‘평양창광옷공장’의 매달 평균계획 120% 이상 초과 생산과 생산공정의 컴퓨터화 실현 등 경제短信 보도(평방)
- 황해남도 ‘바닷가양식사업소’ 몽금포수산사업소 등의 노동계급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배 이상 바다나물 증산성과 보고(평방)
- 몽골 국가대회의 대표단(단장: 「슈, 공가도르쥬」, 국가대회의 환경 및 농업 문제상설위 위원장), 평양 도착(중방)

■7.30(수)

- 러시아의 히바롭스크에서 북한 상품전람회(7.21-26) 개막(중방)

■7.31(목)

- 황해관개건설사업소, 김일성의 서흥호 건설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 개최
- 「금속기계공업성대표단」(단장: 금속기계공업상 전승훈), 러시아와 중국방문 후 평양 도착

■8.1(금)

- 김정일위원장, 제821군부대 직속 3대혁명붉은기중대와 「4.16일 염소목장」(제757군부대에서 운영)등 시찰 보도(중·평방 등)
- 제2차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회의(7.29-31, 개성)에서의 합의결과(「4대 經協合意書」 발효 및 남북간 거래물품의 원산지확인절차 합의서) 보도(중방)

■8.2(토)

- 인민경제 여러 부문 공장-기업소들, “7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보도(중방)

■8.3(일)

- 제6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진행 예정(8.11-14, 평양 및 중국·독일·태국·말레이시아 등에서 전자 및 통신·경공업관련 100여개 회사 참가) 보도(중방)

■8.5(화)

-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체신성 및 수매양정성·기상수문국·중앙통제국 등 일꾼-근로자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평방)
- 김일성의 노작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 발표(“53.8.5, 당중앙위 제6차 전원회의) 50돌 즈음 ‘전후 경제건설의 기본 노선을 밝혀 주시어’ 題下 보도(중방)
- ‘주체적인 농업협동방침을 제시하시어’ 題下로 김일성을 칭송(중방)
- 이영옥(平南道 평원군 원화리 거주)의 實談, ‘협동화의 씨앗은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題下로 김일성의 농업협동조합 현지도를 칭송(중방)
- 黃北 건설자들, 김정일의 말씀(2003.6.13, 연건평 2,840여㎡ 규모의 현대적 고구마가공공장 건설)을 관찰하기 위한 쫓기모임 진행(신계군)
- 중앙과학기술통보사,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진행(모란봉극장)
- 함북 근로자들, 김정일의 어랑천발전소 건설장 현지도시 제시과업 관찰 쫓기모임 진행(청진시)

■8.6(수)

- 김정일위원장, 평양화장품공장·선교편직공장 등 평양시내 경공업 공장 등 현지도 보도(중방)
- 농업과학원 「황해남도 농업과학분원」 창립(63.8.7) 40돌 기념보고회 진행
- 「강원도 농업과학분원」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 「과학원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최근 “우리식 과학기술대사전” 「광명-2003」 편찬 사실 보도(평방)

■8.7(목)

- 평원군에서 올 상반기에 3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 및 1천kW의 발전능력 향상 및 허천강발전소의 일꾼-근로자들의 전력증산실적 보도(평방)
- 평원군에서 올 상반기에 3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 및 1천kW의 발전능력 향상 및 허천강발전소의 일꾼-근로자들의 전력증산실적 보도(평방)
- 중국 외교부대표단(단장: 「왕의」부부장), 평양 도착

■8.8(금)

- 강계시 당원-근로자들의 1,400여세대 가정집 건설 등 현대적인 市로 면모 시키기 위한 투쟁성과 보도(중방)
- 전국 당선전일꾼돌격대-성 중앙기관 돌격대들의 ‘삼자연학생소년궁전’ 개건 확장공사 및 황해관개건설사업소 건설여단의 일꾼-돌격대원들의 백마-철산 물길(水路) 공사실적 보도(평방)
- “상반기중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동대원애국편직물공장」 일꾼-종업원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앙TV)

■8.9(토)

- 농업과학원 「농업기계연구소」에서 절전형 수직식 소형 ‘강냉이 탈곡기’ 및 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 방직연구소에서 가지형 인공혈관계작 등 갖가지 새로운 발명성과 보도(중방)
- 강원도내에 건설중인 원산청년발전소 건설 및 각지 경공업공장의 인민 생활품 증산성과 보도(중방)
- 黃南道내 ‘계남목장’ 대규모 확장공사 진행실시 보도(평방)
- 중국 외교부대표단(단장: 「王毅」부부장), 평양 출발
- 중국 및 독일·태국·말레이시아대표단 등, 제6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참가차 평양 도착

■8.10(일)

- 「대봉광산 제1선광장」 조업식 진행
- 平南道 순천 및 개천지구에서 각각 40여개의 탄광을 개발한 것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지난 7개월간 “230여개의 중소형탄광을 개발했다”고 보도(중방)

■8.11(월)

- 제6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개막식 진행(3대혁명전시관)
- 외무성대표단(단장: 부상 궁석웅), 러시아 방문차 평양 출발

■8.12(화)

- 개성유리공장, 새로운 스펀트(※有色, 유리섬유 삼입) 생산 보도(중방)

■8.13(수)

- 咸北道에서 인민생활 ‘公債’ 판매 여유자금으로 어랑천발전소 건설장 등 개건·보수 공사에 집중투자 하는 등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배정순(道 중앙은행 함북도지점 부지배인)의 記者 인터뷰(중방)

■8.14(목)

- 김정일의 러시아 원동지역 방문 1돌 즈음 「북한사진-도서 및 수공예품 전람회」(폼소몰스크 나-아우래시 미술관) 개막소식 보도(중방)
- 김일성-김정일부자의 양강도 현지도 40돌 기념보고회 진행(혜산시)

■8.15(금)

- 애국적 소행을 높이 발양한 대동강구역 공업품종합상점 등 수개 단위 일꾼들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 公債 구입 등 애국적 소행을 높이 발양한 수개 단위 일꾼들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8.16(토)

- 평양화장품공장 및 선교편직공장 종업원들, 김정일의 「현지말씀」(2003.8.5, 현지도시) 관철 켈기모임 진행
- 제3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저람회」 참가 각국 대표단(「세계문제에 관한 파그위시」, 중국 길림성 명대유한공사, 요령성 민족출판사, 일본 과학기술 협조전람회, 나이제리아 과학기술성, 재미동포 도서기증회, 러시아 원동국립종합대학, 원동국립기술종합대학, 원동분원도서관, 과학원 시비리분원 국가과학기술대중도서관, 카자흐스탄 과학 및 교육성 중앙과학도서관, 국제환경텔레비죤그룹 등), 평양 도착

- 외무성대표단(단장: 부상 궁석웅), 러시아 방문 마치고 평양 도착
- 제6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참가 중국-태국-독일-말레이시아-중국 대북 대표단 등, 평양 출발
- ‘잊지 못할 역사의 8월’ 題下로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2002.8)을 美화(평방)

■8.18(월)

- 제3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개막식 진행(김일성종합대학체육관)
- ‘발전소 건설장에 차넘치는 결사옹위의 메아리’ 題下로 「어랑천발전소」(함북 소재) 건설자들의 투쟁이야기를 소개(중방)

■8.19(화)

- ‘선군시대를 사랑하는 위대한 창조물’ 題下로 「개천-태성호물길」· 청년 영웅도로· 안변청년발전소 등을 소개(평방)

■8.21(목)

- 제3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폐막식 진행(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

■8.20(수)

- 함경남도 체신관리국, “광섬유케이블공사 및 이동통신-전자우편통신 등 체신현대화 주력” 보도(중방)
- 단상, ‘8월에 대한 생각’ 題下로 김정일의 두 차례(‘01-‘02) 러시아 방문의 의미 및 위대성을 칭송(평방)
- ‘남북 투자보호에 관한 합의서’ 등 ‘남북간 4대 경험합의서 발효 통지문’ 관문점 연락관접촉을 통해 교환
- 中國 정부와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39차 회의 의정서」 조인(평양)

■8.22(금)

- ‘남북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제6차 실무접촉」(8.21-22, 개성) 진행 및 ‘합의서’ 채택사실 보도(평방)

■8.23(토)

- “백두산지구 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대동강수출피복공장 등의 일꾼-종업원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8.24(일)

- 김정일의 書翰 「체신의 현대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발표('93.8.25) 10돌 기념보고회 진행(평양)

■8.25(월)

- 「원산염소목장」(마식령기슭 소재, 염소우리 36동, 토끼우리 18동 등) 건설이 “마감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평양)

■8.26(화)

- 강계시, “자체로 생산된 전기 및 일꾼과 근로자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낙원의 도시로 일떠서고 있다”고 보도(중방)
- 강원도 「도시설계사업소」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진행

■8.27(수)

- 함흥화학설계사업소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진행

■8.28(목)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진행(8.26-28, 서울) 및 ‘합의문’(제9항) 채택 보도(중·평양)
- 러시아 원동지역사진전시회대표단(단장: 「올가 말쎬바」), 평양 도착

■8.31(일)

- 「조-중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 제42차 회의 「합의서」 조인(평양)

■9.1(월)

- 「금야강발전소」건설장, 김정일이 보내온 운전기재들 전달모임 진행
- 「원화협동농장」(平南 평원군 소재) 농장원들, “가을건이와 난알털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낼 것을 결의하면서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하는” 모임 진행

■9.2(화)

- 김정일의 러시아 원동지역 방문 1돌 기념 「사진전시회」(‘원동땅에 남기신 위대한 자욱’) 개막식 진행(평양문화전시관)

■9.3(수)

-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 개최(만수대의사당)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국가지도기관 선거, '조미간 외무성 조치 승인' 등 3개 의안 결정 및 토의

■9.7(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9.2자)을 통해 동대원구역 송배전소 등 18개 단위에 「2중3대혁명붉은기」·평양조명기구공장 문화용 전구직장 등 83개 단위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 보도(중방)
- '정권창건' 55돌 즈음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공로있는” 일꾼-근로자들에 대한 「표창식」 진행(만수대의사당)
- 최근 체신성 등 체신부문 일꾼-기술자들에 의해 현대적인 이동통신망 (평양과 각 도 소재지들·평양-향산 관광도로 등) 開通 보도(중방)

■9.8(월)

- 혁명일화, '물 절반, 고기 절반' 題下로 김정일의 “메기양어와 메기공장 건설에 대한 큰 관심으로 인민들의 食生活 개선 등 강성대국 미래” 낙관 보도(중방)
- 러시아연방 원동연방구 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콘스탄틴 보리소비치 폴리콥스키」, 평양 도착

■9.9(화)

- 김정일위원장, 러시아 원동연방구 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접견

■9.11(목)

- 러시아 원동연방구 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및 원동지역 사진전시회대표단·캄보디아 폰신베크당대표단·재일본 조선인상공인대표단등, 각각 평양 출발

■9.12(금)

- 김정일의 러시아 원동지역 방문 1돌 즈음 「북한사진-도서 및 수공예품 전람회」(8.22-9.8, 하바롭스크 원동군관부 역사박물관 등) 진행 보도(중방)

■9.13(토)

- 국가품질감독국대표단(단장: 부국장 손병학), 중국방문차 평양 출발

■9.14(일)

- 평양시 형제산구역 보통강내 「제산軍民다리」 준공식 진행
-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및 조선컴퓨터센터 등 혁명과업 수행에 모범을 보인 일꾼-근로자들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9.15(월)

- ‘채취공업성’ 산하 연풍광산 등 27개 광산 기업소들의 광물 초과생산 및 자장도에서 최근 5년간 홍주청년1호발전소 등 200여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 및 전력생산 성과 보도(평방)
- 국가품질감독국,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 「품질인증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및 「03-04년도 규격화, 계량, 품질감독분야에서의 협조계획서」 등 조인(베이징)

■9.16(화)

- 각지 중소형발전소들이 “만부하를 걸어 국가의 전력을 받지 않고도 자체 생산한 전기로 필요한 전력수요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중방)
- ‘부단오리공장’의 비육사 등 기본생산건물(면적 10여만㎡, 60여개동) 완공(7월)에 이어 보조건물(40여개동) 완공 보도(중방)
- 체신성 설계사업소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진행
- 만경대수출피복공장 조업 10돌 기념보고회 진행
- 제8차 「전국정보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9.15-16, 인민대학습당)
- 보건성대표단(단장: 부상 최창식), WHO 동남아시아 제21차 「보건상회의」 참가후 평양 도착

■9.17(수)

- 「용양광산 6월5일갱」(함남 소재) 완공 조업식 진행

■9.18(목)

- 기자의 「구성공작기계공장」 방문기, ‘크나큰 감격 안고 들끓는 기계공장’(중방)
- 「몽골-북한간 2003-2005년도 문화교류계획서」 조인(9.16, 몽골) 사실 보도(중방)

■9.19(금)

- 해주시 소재 「산성유원지」 도로포장공사 진행소식 보도(중방)

■9.20(토)

- 「백마-철산 물길공사」 동원 일꾼-건설자들, 단기간내 101만 9천여㎡의 토량처리 및 23만 1,100㎡의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진척 상황 보도(평방)
- 정부대표단(단장: 외무성 부상 최수현), 유엔총회 제58차 회의 참석차 평양출발(중방)
- 黨 중앙위 국제부대표단(단장: 부부장 김태종),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
- 시리아 외무성대표단(단장: 「이사 다루위시」 부상), 평양 도착
- 평양시친선대표단(단장: 평양시 인민위 부위원장 김종식),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

■9.21(일)

- 러시아정부와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과학기술협조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의정서」 채택(평양)

■9.23(화)

- 「임업성」 설계사업소 창립('95.9.24) 50돌 기념보고회 진행
- 黨 중앙위 국제부대표단(단장: 부부장 김태종), 중국 방문후 평양 도착
- 시리아 외무성대표단(단장: 「이싸 다르위쉬」부상), 평양 출발

■9.24(수)

- 제30차 「전국농기계전시회」(※30여種 240여점 출품) 진행(9.22-24, 평양)
- 「전국4.15기술혁신들격대들의 기술혁신경기 총화회의」 진행(인민대학습당)
- 정부문화대표단, 인도정부와 「2003-2006 문화교류계획서」 조인(9.18, 인도 뉴델리) 보도(9.18, 인도 뉴델리)
-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대표단(단장: 길림성장 겸 省委 부서기 「홍호」), 평양 도착

■9.25(목)

- 평산대리석광산 등 3개 단위에 「2중 3대혁명붉은기」, 함남 지방건설건재 관리국 등 4개 단위에 「3대혁명붉은기」를 각각 수여하는 의식 진행 보도(평방)
- 「변함없는 압살기도」 題下로 유엔총회 제58차 회의(9.23)시 「부시」 대통령의 「PSI 결의안」 채택 요구를 비난(중방)
- 「국가품질감독국대표단」(단장: 손병학 부국장), 중국 방문 후 평양 도착

■9.26(금)

- 이효선(과학원 합흥분원 원장)의 實談, ‘경애하는 장군님은 과학과 기술의 거장이십니다’ 題下로 김정일의 “과학중시정치·과학자-기술자들에 대한 사랑”을 칭송(평양)

■9.27(토)

- “혁명임무 수행에서 보법을 보인” 성진내화불공장 등 5개 단위 일꾼-근로자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 ‘핵억제력은 자주권의 수호수단’ 題下로 對美 비난(평양)
-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대표단 및 리오스 「공보 및 문화성대표단」등, 각각 평양 출발

■9.28(일)

- 평양시친선대표단(단장: 평양시 인민위 부위원장 김정식), 중국방문 후 평양 도착

■9.30(화)

- 黃北道 9개 시·군에 11개 국·소들의 이동전화통신망 중계소 건설 완료 및 이동전화 개통 성과 보도(중방)

■10.2(목)

- 러시아 연해변강행정장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다르킨」 일행, 평양 도착

■10.3(금)

- 최수현 외무성 부상의 ‘유엔총회 제58차 회의’ 연설(9.30자) 내용 보도(평양)
- 러시아 연해변강행정장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다르킨」 일행, 평양 출발

■10.6(월)

- 중앙재판소법률대표단(단장: 소장 김병률) 및 세관총국대표단(단장: 총국장 김경섭)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방문차 각각 평양 출발

■10.8(수)

- 함남소재 「덕성인민유원지」 준공식 진행
- 세관총국대표단(단장: 총국장 김경석), 「러시아정부간 세관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모스크바)

■10.10(금)

- 평북 박천군내 1,400여세대의 살림집과 근 100동의 공공건물-문화후생 시설들의 '집들이' 소식 보도(중앙TV)

■10.12(일)

- 석탄공업총국 중소탄광국 산하 탄광들, 연간 석탄생산계획 중 "9월말까지 25만 7천여톤을 초과 생산(1.2배-1.5배)" 보도(중방)
- 전국 당선전일꾼대 돌격대 및 평양시대동강구역 돌격대원들·김책공업대학 과학자-기술자들에 의해 "삼지연군에 현대적 「외장제공장」 건설" 보도(평방)
-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는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이다'(중방)

■10.13(월)

- 김정숙군 장항리에 "100여동의 현대적 살림집 건설, 새 집들이 진행" 보도(중방)
- 「국가관광총국대표단」(단장: 부총국장 박치복), 세계관광기구 제15차 총회(중국 北京) 참석차 평양 출발

■10.14(화)

-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평양 도착
- 과학원대표단(단장: 원장 변영립), 「3세계 과학원 9차대회」 및 중국 과학원 창립 20돌 기념행사 참가차 평양 출발
- WHO 동남아시아지역국 국장(「우톤 무크타르 라페이」) 일행 및 터키 노동조합 연맹대표단(단장: 총서기 「쉐세인 까라꼬쯔」) 등, 각각 평양 도착

■10.15(수)

- 「대관메기공장」(平北 대관군 온천지구) 완공 조업식 진행

■10.16(목)

- 평북 소재 「운산메기공장」 조업식 진행
- 「세계식량의 날」(10.16) 즈음, '기아를 반대하는 국제적 연합을 위하여' 題下로 북한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토지정리-이모작 등 현실적인 조치들이 광범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중방)
- 「전국 주민용 연료 및 탄소재료부문 과학기술발표회」(10.15-16, 김책공업 종합대학) 진행
- 세관총국대표단(단장: 김경섭 총국장), 러시아 방문 후 평양 도착

■10.18(토)

- 정평군과 함주군, 김정일의 금진강6호청년발전소 및 흥봉발전소 인제 건설장 현지지도 1돌 기념보고회 각각 진행 보도(중방)
- 평양시 인민봉사총국, 최근 옥류관에서 「주식물 품평회」(※밥, 떡, 지짐, 만두, 빵, 짜장류 등 560여가지 주식물 출품) 개최 보도(중방)
- 「태국-조선친선의원단」 대표단(단장: 위원장 「피찬 피분화 타나윙」) 및 베트남 외무성대표단(단장: 부상 「레반 방」) 등, 평양 도착
- 터키 노동조합연맹대표단 및 WHO 동남아시아지역국 국장 일행 · 「몽골-백두산협회」 대표단 등, 각각 평양 출발

■10.19(일)

- 자강도, “풀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를데 대한 당의 영도를 받들어 지난 8년동안 6만여정보 풀판 조성 및 젖생산량 4배, 집짐승 마리수 2.6배 증가” 등 보도(평방)

■10.20(월)

- 강동군 용흥리에 “60동의 문화주택(※아랫방과 옷방, 창고와 집짐승우리 등으로 구성된 1동 1세대 농촌살림집) 보급” 보도(평방)
- 駐北 몽골대사 「잔치브도르쥬 룬보」와 대사관 성원들, 「조선-몽골친선 정방협동농장」 가을걷이 일손돕기 행사 참가

■10.21(화)

- 「강서약수가공공장」 조업식 진행

■10.22(수)

- 남포 영예군인신발공장의 일꾼-노동자들 신발생산 초과달성 및 용진군에서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 기간을 맞으며 올해 8개의 다리 건설과 도시시설물 건설·보수 등 단장 자랑(평방)

■10.23(목)

- 최근 ‘검덕광산’의 노동계급이 지난해 대비 기본굴진 178%, 준비굴진 163%의 굴진과 갱 건설 실적으로 하여 광물 增産 보도(중방)
- 평양시 통일거리에 현대적인 「깍공장」(연건평: 4,000㎡) 완공 조업식 진행
- 중앙재판소 법률대표단(단장: 소장 김병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방문 후 평양 도착

■10.25(토)

- 과학원대표단(단장: 원장 변영립), 중국방문(제3세계 과학원 제9차 대회와 3세계 과학원 창립 20돌 기념행사 참석) 후 평양 도착

■10.26(일)

- 국가관광총국대표단(단장: 부총국장 박치복), 세계관광기구 제15차 총회 참가(중국 北京) 후 평양도착

■10.27(월)

- 김정일의 노작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발표 30돌 즈음 “과학기술 발전업적”을 칭송(중방)
- 黃南 해주시 소재 「수양산성유원지」 개건 확장(3.500m 유람도로 포장 및 수영장·낚시터 등) 준공식 개최

■10.28(화)

-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떠미는 우리의 과학기술’(중방)

■10.29(수)

-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 개막식 진행(인민문화궁전)
- 5월4일광산에서 10월27일 현재 10월 인민경제계획을 101.5% 초과 달성 및 6월4일차량공장의 객차 배차생산과 화차수리 성과 보도(중방)

■10.29(수)

- 함북 청진시와 중국 길림성 장춘시간 「친선도시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서」 조인(10.25, 장춘시) 사실 보도(중방)
- 「우방귀」(중국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전인대」상무위원장)의 방북 관련 노동신문 사설 ‘중국인민의 친선의 사절’ 및 ‘약력’ 소개(중방)
- 중국 국가대표단(단장: 全人大 상무위원장 吳邦國), 평양 도착
- 중국 국가대표단, 김영남에 “對北 무상원조 제공결정” 통보

■10.30(목)

-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 폐막식 진행(인민문화궁전)
- 제18차 「중앙과학기술축전」(10개 분과, 200여건 출품, 10.27-30, 3대혁명전시관)

- 김정일위원장, 중국 국가대표단(단장: 「우방귀」 중국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俞人大 상무위원장) 접견 및 만찬 배석
- 「중국 국가대표단의 북한방문과정에 쌍방이 북-미간 핵문제와 관련하여 토의한 정형에 대하여」 발표(중방 등)

■10.31(금)

-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발휘한” 무역성-건설기계공업성-평양 고려호텔 종업원 등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 중소형발전소 「평원 1·2·3호 발전소」(平南 평원군) 건설 준공식 진행
- 최근 한달동안 平南 및 평양시·남포시의 토지정리 2단계 공사에서 1만여 정보의 토지정리 성과 보도(평방)
- 중국 국가대표단(단장: 吳邦國), 평양 출발

■11.1(토)

- 자강도에서의 최근 한달 동안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사업」 전개 성과 (52km 도로와 10개 다리 건설·470km의 도로 기술개선과 정리·150km의 제방 및 용벽구축공사 등) 보도(중방)
-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기계직장 등(신의주혁명사적지관리소·보천보혁명 박물관)에 「2중3대혁명붉은기」, 함흥성천강피복공장 등(신의주과자생산 협동조합·박수선에국차봉사사업소 1중대·고원군 농촌자재공급소)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 보도(중방)

■11.2(일)

- 평양시 당원-근로자들의 남강橋(사동구역 금탄리↔승호구역 리천리 연결) 건설 진척 성과 보도(중방)
-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혁명임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간 강사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농근맹 해설강사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11.3(월)

- 모란봉자동화기구공장 등 전자공업성의 공업생산액 계획 104.8% 수행을 비롯하여 윤전기계공업관리국 산하 단위 등 인민경제 각 부문 공장·기업소들에서 10월 계획 104.5% 초과 달성 보도(중방)

- 강계시에서 올해 1,400여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목표로 7월 '전승기념일'을 맞으며 300여세대의 살림집 완공 및 최근 관고군내 일꾼-근로자들의 가을철 국토관리사업 성과 보도(중방)
- 함남도 먼바다 어업연합기업소 아래 단천지구의 기업소들, 련대 지구에 1만여 정보의 "바다자원보호증식구역을 새로 조성" 보도(중방)

■11.4(화)

- 백마-철산물길공사장(평북 소재), "4만산 발파 성공적 진행" 보도(중방)
- "중요 대상 건설과 혁명과업 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송전선건설사업소 등 수개 단위 일꾼-근로자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 「원산화학공장」, "새로운 돌솥방적기(※종전의 방적기 보다 생산성을 2배로 提高) 개발" 보도(중방)
- 국가자원개발국 산하 각지 탐사대들과 공장-기업소들, 「10월인민경제 계획」을 먼저 끝내고 "11월에 들어와서도 계속 생산적 양양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중방)
- '위대한 선군영도 아래 창조된 우리 식의 관개역사' 題下로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업적을 선전(평방)

■11.5(수)

- 개성영예군인의료기구공장의 '바늘없는 주사기' 증산(올해 2월부터 생산) 및 평양시 등 보급 보도(중방)
- 김일성의 「지방예산제방침」 제시(1973.10.31) 30돌 기념보고회 개최(인민 문화궁전)
- 평남 북창군, 자체의 힘으로 개건 확장한 「上水道시설」 준공식 진행

■11.6(목)

- 청진철도국 청진기관차대 소송전사들, "200만km 무사고 주행보장, 수송계획 102.3% 수행성과" 보도(중방)
-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 題下로 북한의 "사회주의 우월성"을 해설(중방)
- 記者의 「태천발전소」 紀行, '우리의 자랑 태천발전소'(중방)

■11.7(금)

- 김봉채가 일하는 기업소에서 제작한 船舶 수리용 3천톤 「뜯 독크」 進水式 진행

- 성단 및 화평·낭림 등의 “겨울철 통나무생산 개시 및 黃北道 고려약 생산관리국의 올해 고려약 생산계획 2개월 앞당겨 107% 수행” 보도(중방)
- 「경련에국사이다공장」 등의 紀行, ‘인민을 위해 참답게 복무하는 경공업 기지들’(중방)

■11.8(토)

- 함경남도, 최근 “연간 수만톤 생산능력을 가진 배합먹이공장 개건 현대화 사업 진행” 보도(평방)

■11.9(일)

- 평양시 나성직매점 및 화학공업성 직매점 등 수개 단위 일꾼-근로자들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11.10(월)

- 노동신문 사설, ‘당의 과학기술 중시노선을 틀어쥐고 강성대국 건설을 다그치자’(중방)

■11.11(화)

- 서흥군내 일꾼-근로자들의 국토관리사업 성과(서운강 기슭에 8천여㎡ 모자이크 그림판과 10여개의 조각, 11동 60여점의 각종 놀이시설 건설 등) 보도(중방)
- 북청군에서 내년에 50여정보의 植樹계획의 일환으로 653만 7천여개의 구덩이파기 완료 및 정산橋 건설·30여동의 살림집 건설 등 국토관리 총동원기간 사업성과 보도(중방)
- 중국 기상국대표단(단장: 「유윤금」 부국장), 평양 도착

■11.12(수)

- 금야2호발전소(平北 창성군)에서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고 전력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도 마련” 등 전기 增産투쟁 소식 보도(중방)
- 인도네시아정부와의 「쌍무 협상수립에 관한 양해문」 및 「외교 및 공무 여권소지자들에 대한 무사증제협정」 조인(평양)

■11.13(목)

- 자강도 도시설계사업소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및 당 중앙위 축하문 전달식 진행

- 당 국제부대표단(단장: 부부장 김태종), 라오스 방문후 평양 도착
- 국가품질감독국대표단(단장: 국장 김형철), 베트남 방문차 평양 출발
- 러시아 원동국립기술종합대학 총장 「겐나지 투르모프」, 평양 도착

■11.14(금)

-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발휘한” 화학공업성 자재상사 및 창광원 등 수개 단위 일꾼-근로자들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일꾼들, ‘금요노동’ 실시 보도(금수산기념궁전)

■11.15(토)

- 김정일의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지시찰 40돌 기념 보도(중방)
- 함남 용성 및 홍남 등지 일꾼들, 새로운 ‘배합먹이기계’ 창안 제작 보도(중방)
- 黃北道의 국토관리사업(살림집 1,500여동 건설 및 190여동 보수·140km 도로포장·650만여그루 植樹 등) 성과 및 각 道·市·郡 등의 「국토관리 총동원기간」 사업성과 보도(평방)
- KEDO 사무총장 「찰스 카트먼」 일행, 평양 도착
- 정부경제대표단(단장: 무역성 부상 구본태), 베트남 방문차 평양 출발
- 스위스 외무성 대표단(단장: 「로돌페 임호프」 외무성 아시아 및 오세안주 담당국장), 평양 도착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장 「쑤띠요쏘」 일행, 평양 도착
- 인도네시아 외무성 대표단(단장: 「마까림 위비쏘노」 亞-太 및 아프리카 총국장), 평양 출발

■11.17(월)

- 노동신문 사설,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이자’(중방)
- 「세계기상기구」의 자원적 협조계획에 따른 중국기상국의 對北 기상설비 기증식 진행(인민문화궁전)
- 기상수문국, 중국기상국과 「기상 과학기술교류 및 협조에 관한 제12차 회담록」 조인(평양)
- 법률대표단(단장: 중앙재판소장 김병률) 및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단장: 부소장 이영태) 등, 중국방문차 각각 평양 출발
- 러시아 원동국립기술종합대학 총장(「겐나지 투르모프」), 평양 출발

■11.18(화)

- 수백리에 달하는 「백마-철산 물길」(평안남도 소재) 배수굴 공사 早期완공 사실 보도(평양)
- KEDO 사무총장 「찰스 카트먼」 일행, 평양 출발
- 스위스 외무성대표단(단장: 「로돌페 입호프」 외무성 아시아 및 오세안주 담당국장) 및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장 「쭈띠요쏘」 일행, 평양 출발
- 중국 기상국대표단(단장: 부국장 「유영금」)과 인민일보대표단(단장: 부총편집 「이덕민」) 등, 평양 출발

■11.19(수)

- 자강도 중소발전소관리국 일꾼-기술자들,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등 “각지 연구소의 방조속에 20여건의 발명, 170여건의 기술혁신안·합리화안들을 중소형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도입” 보도(중방)
- 몽골수상 「남마린 엔흐바야르」 일행, 오진 특별기편으로 평양 도착 및 滯北動靜 등 구체적 보도(중·평양)

■11.20(목)

- 종합자료 인용, 금년중 전국적으로 “17만 2천여 세대의 살림집, 1만 7천여 동의 공공건물 보수, 4천112만여 m² 도로 등 신설 보수” 보도(중방)
- 국가품질감독국, 베트남 규격 및 품질총국과 「규격화·계량·품질관리분야에서의 협조협정」 체결(하노이)
- 중국 상무부와 문화부, 「조-중경제 및 문화협조협정」 체결 50돌 즈음 연회 개최(베이징)

■11.21(금)

- 함남 「함흥후방가족피복공장」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및 당 축하문 전달식 진행
- “강성대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는” 과학자-기술자들에 대한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 記者의 평양시 토지정리현장 녹음보도, ‘토지정리 전투장에 뜨거운 애국의 열정 끓어 번진다’(중방)
- 세계 160여개국 정계-군부-사회계 인사 및 친선단체들에 의해 공개된 “김정일의 수식호칭이 1,200여개에 이른다”고 보도(중방)

■11.22(토)

- 무역성과 문화성, 「조-중경제 및 문화협조협정」 체결 50돌 즈음 연회 개최 (인민문화궁전)
- 스웨덴왕국 외무성대표단(단장: 총정치국장 「안데르스 리텐」), 평양 도착

■11.23(일)

- 평양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제대군관들에게 230여세대의 살림집 건설 제공 보도(중방)
- 법률대표단(단장: 중앙재판소장 김병률), 중국방문후 평양 도착

■11.24(월)

-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군의 면모를 일신시킨 박천군 일꾼들’(중방)
- 스웨덴 외무성대표단과 “쌍무관계를 계속 확대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등 「정치대화」 진행(평양)
- 외교단사업총국대표단(단장: 총국장 최수일), 러시아방문차 평양 출발

■11.25(화)

- ‘사랑의 향기 넘치는 화장품공장’ 題下로 최근 개건-확장된 「평양화장품공장」을 소개(평방)
- 스웨덴왕국 외무성대표단, 평양 출발

■11.26(수)

- 분계선 지역인 “개성시 평화리·판문점리 등에 4개 마을 및 현대적 살림집 136동 건축” 보도(평방)
- 평북 「백마-철산물길공사」 2만산 발파 성공소식 보도(중방)

■11.27(목)

- 「전국지질탐사부문 과학기술발표회」(11.24-26) 진행 보도(중방)
- 남포항 부두확장공사에 따른 “잔교식 짐함부두 건설성과” 보도(중방)

■11.30(일)

- “백두산지구 혁명전-사적지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인민군 안철호소속부대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12.1(월)

- 평양대홍모피가공공장,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및 당 중앙위 「감사문」 전달식 진행

■12.2(화)

- 도시경영성 중앙난방연구소, “**은** 보도블럭과 인조대리석 개발” 보도(중앙TV)
- 평양시 보통강구역 수출품가공공장 등, “11월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수행 및 생산적 양양 계속” 보도(중방)
- 남포시 와우도구역 돌격대원들, “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굳민거리 건설 계획을 어김 없이 넘쳐 수행” 보도(중방)
-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설된 약수공장’ 題下로 「강서약수가공공장」을 소개(평방)
- 軍 정치일꾼대표단(단장: 대장 박재경), 베트남 방문차 평양 출발

■12.3(수)

- 평남 청년돌격대원들, 온천군 금성간석지 개간전투 쉼기모임 및 착공식 진행 보도(중앙TV)
- 전자공업성, “11월중 공업생산계획 112.8% 초과 달성” 보도(평방)
- 함남 및 양강도 등, 올해 “7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 보도(중방)
- “평양의 여객수송문제를 푸는데 기여한” 서평양무궤도전차사업소 운전사 도준길에 대한 김정일의 「선물」 전달모임 진행

■12.4(목)

- “백두산지구 혁명전-사적지 건설지원에 모범을 보인” 라선시 시장관리소 등 수개 단위 일꾼·근로자들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 노동신문 논평, ‘동시행동원칙과 일팔타결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보도(평방)
 - 차기 6자회담에서 미국이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팔타결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

■12.5(금)

- 「이정민동무가 일하는 연구소」의 과학자들, ‘견인전동기용 솔’ 및 ‘탄화규소전기발열체’ 개발 보도(중앙TV)
- ‘녹음 구성: 사회주의 신념 더욱 굳건해진 자랑스러운 해, 선군의 위력으로 승리를 떨친 주체 92년’(중방)

- ‘존칭에 담긴 위인칭송의 뜨거운 마음’ 題下로 “김정일의 호칭이 1,200여 개에 달한다”고 보도(중방)
- 외무성대표단(단장: 부상 김영일), 네팔 방문중 「자렌트라 비루 비르람 샤우데브」 국왕과 담화
- 전기석탄공업성대표단(단장: 제1부상 문창남), 「조-중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55차회의 결정서 조인(배이징)

■12.6(토)

- 「요덕중이공장」 일꾼과 종업원들, “무연탄 대신 톱밥을 연료로 이용하여 석회생산에 성공” 보도(중방)
- 황해남도의 해안방조제 정리성과(※ 연 140여리) 보도(평방)

■12.7(일)

- 평남 태탄군, “류정-운산간 도로(※총토량 25만㎡) 건설” 보도(중방)
-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총회」 제32차 회의(12.2)시 북측 대표단 단장의 연설내용 보도(중방)

■12.8(월)

- 황북 사리원시, 김일성·김정일의 황해북도 현지도 40돌 기념보고회 개최
- ‘1990년대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완강한 공격전을 벌여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중방)
- 자강도 강계시 등, “필요한 자재를 균중적으로 풀어 나가는 가운데 수천 세대의 살림집 완공” 보도(중방)

■12.9(화)

-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사업에 기여한” 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 연구실의 과학자 등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 ‘강위력한 자립적 국방공업을 마련하시어’ 題下로 김정일을 칭송(중방)
- 외무성 대변인, KCNA 기자회견을 통해 “6자회담의 재개여부는 우리가 제기한 첫 단계 조치가 합의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언명
- 국가대표단(단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영대), 「정보사회에 관한 세계수뇌자회의」(스위스 제네바) 참가차 평양 출발
- 「베트남-조선천선의원단대표단」(단장: 인민회의 민족이사회 위원장 「짚마 빠오」), 평양 도착

- 인도네시아 대통령특사(대통령 정치고문 「나나 스프레스나」) 일행 및 EU 트로이카대표단(단장: 이탈리아 외무성 총국장 「구이도 마르티니」) 등, 각각 평양 도착

■12.10(수)

- 전국 각지 휴양소들, '겨울철 농민휴양' 개시(12.1-) 보도(중방)
- 개성시 동흥중학교, '상식교육' 실시 보도(중방)
- 강원도 전신전화국, 최근 "광통신망을 이용한 새로운 감시방식기술 개발" 보도(중방)
- 외무성대표단(단장: 국장 김춘국), EU 트로이카대표단과 '정치대화' 진행(평양)

■12.11(목)

- "사회주의 농촌을 성심성의껏 도와준" 대흥단군-육해운성 등 省 중앙기관과 해당 단위들에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 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제10차회의(12.1-5, 오스트리아 비엔) 개막소식 및 북측대표단 단장의 연설내용 보도(평방)

■12.12(금)

- 제6차 「전국양어부문 과학기술발표회」(12.10-12, 평양) 진행 보도(평방)
- 평양시 낙랑구역 두단지구에 "수십세대의 살림집 건설" 보도(평방)
- 구장세멘트공장, 「백마-철산물길공사」 1만산 발파에 필요한 시멘트생산 실적 보도(중방)

■12.13(토)

- 라오스 인민혁명당 대외관계위원회대표단(단장: 부위원장 「윌라이완 폼케」), 평양 도착
- 과학원대표단(단장: 부원장 박승채), 몽골 방문차 평양 출발

■12.16(화)

- "인민생활공채 판매사업 및 구매에 적극 참가한" 각계 각층 주민들에게 김정일의 「감사」 전달 보도(중방)
- 베트남 「전국농업 및 농촌개발근로자동맹대표단」 및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베이징시위대표단」 등, 각각 평양 도착

■12.17(수)

- 「백마-철산물길공사」 건설자들의 “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결의모임 진행
- 농업성의 지도아래 황북-평남북 등지에서 “수 만개의 감자저장소 건설” 보도(중방)

■12.18(목)

-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들, “금년 11월까지의 전국적 석탄 생산량이 전년 동기 보다 103% 증가되었다”고 보도(중방)
- “원군미풍을 높이 발양한” 평북 무역관리국 등 10여개 단위 일꾼-근로자들에 김정일의 「감사」전달 보도(중방)

